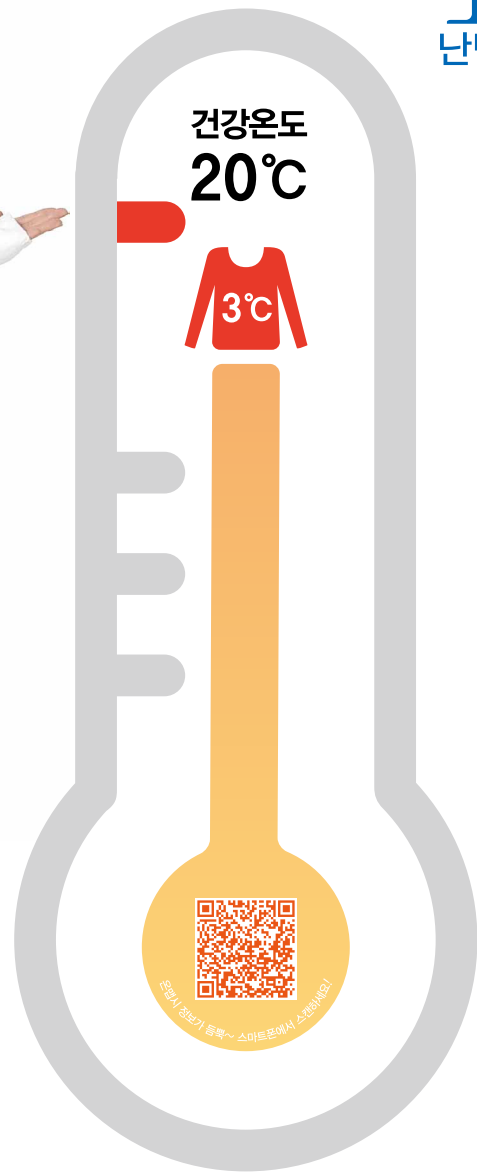
Weekly 공감

2012.12.12 NO.187
korea.kr/gonggam

서로서로 이웃을 배려하면 건강한 사회로 거듭납니다 P31~47

49차례 84개국 순방… 지구 19바퀴 돌며 글로벌 리더십 구축 P14~19

아리랑~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 P24~29

건강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사회의 건강성은 선진국의 척도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선진국상은 국민이 바라는 열망이기도 하다. 건강한 사회, 선진국이란 한마디로 국민이 잘 먹고 건강하며 마음 편히 잘 살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이런 사회를 조성해가는 국가일 것이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볼 때 사회가 잘 기능하고 있으면 건강하고, 그렇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이다. 사회병리학적으로 볼 때 사회가 각종 사회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극복하여 사회구조가 원활하게 기능하면 건강한 사회이고, 그렇지 못하면 병든 사회이다. 병든 사회로는 진정한 의미의 OECD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물론 선진국도 크고 작은 병들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노력과 노하우를 정부가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느냐다.

우리 사회는 각종 사회적 질환들을 치료하고 극복하며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러 사회문제들로 인하여 몸살을 앓는 등 만성적 사회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OECD 국가 중에서 사회병리 현상이 여전히 심한 나라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각종 사회병리 현상을 처방하고 치료하는 의사로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보인다면 이는 건강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살률을 사회병리 현상으로 보고 자살을 예방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면 이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선진국형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것이다.

병든 사회로는 진정한 의미의 OECD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사회의 건강성은 선진국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진국도 크고 작은 병들을 앓고 있다. 문제는 이런 사회적 질병들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노력과 노하우를 정부가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고 또 실제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느냐에 있다.

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인식되기 쉬운 높은 자살률, 임신중절 문제, 입양에 대한 편견 문제,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불법도박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당사자 개인 및 집단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지지를 해준다면 이런 사회병세는 호전될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각종 사회병을 조기 발견해 치료 또는 예방하여 건강 사회를 실현하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사회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예방하는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해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추진력 또한 함께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연된 사회병 속에서 국민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국민 정신건강을 챙기는 위로의 행정 마인드가 필요하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고는 병을 치료할 수 없듯이 국민이 정부의 행정에 감동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며 우리의 사회질병들을 치료해가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건강사회, 선진국은 바로 목전에 있는 것이다. G

Contents

187호
2012.12.12 통권 288호

표지 이야기 |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 실시 이후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1년 OECD 평균보다 낮아졌다. 교통안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시행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사진·조선DB

기획특집

건강한 사회 만들기 우리 모두의 약속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건강한 사회란 '잘못된 사회적 습관'을 없애 각종 사회병리 문제가 해소된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살·인공임신중절, 청소년들의 가출·폭력·따돌림, 도박·마약·인터넷 중독과 약물 오·남용, 잘못된 교통질서, 무분별한 고소, 관혼상제의 허례허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져온 길을 되짚어 본다.

31

48

54

52

위클리 공감 korea.kr/gonggam
발행일 2012.12.1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최광식 **제작협력** 조선뉴스프레스 **인쇄제본** 삼화인쇄 **문의** 02-3704-9887
정기구독 희망하시는 분은 02-2625-3294로 연락주십시오. 현재 구독자이지만 구독을 희망하지 않으신다면 02-2625-3294 또는 jjsmall@korea.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공감라운지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0일(목)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독자 의견을 보내주시면 〈Weekly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Weekly 공감〉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호를 읽고

추운 겨울 저소득층들에 아낌없는 지원 필요

185호 〈난방비 아깝다고 춥게 지내지 마세요〉를 읽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요즘 난방비가 비싸 사용할 엄두를 못 내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걱정이 되네요.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빈부격차가 극심합니다. 난방비 지원이나 보일러 교체, 문풍지 교체 작업 등을 통해 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도 적극 나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리라 봅니다. **석형태(50·회사원·부산 북구 화명3동)**

기술력으로 지켜온 뿌리명가들 많은 발굴을

'기획특집-제조업계 뿌리명가'편을 잘 봤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뿌리기업 명가를 선정해 포상을 주는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주력산업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기업들이 분명 있을 테니까요. 특히 기술의 세계는 트릭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 닿았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앞으로 불모지에서도 성실하게 기술력 하나로 승부하는 뿌리기업들을 많이 발굴해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려희(53·주부·경기 과천시 별양동)

휴대전화 강국 한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IT산업 없이 한국을 설명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특히 IT 분야에서 휴대전화 성장세는 가히 독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스마트폰 수출이 6분기 연속 세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보니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차세대 IT혁신사업인 '기가 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가 스마트 코리아를 실현하고 IT 선도국가로서의 국가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류세인(24·학생·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해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개선과 정부의 지원 절실

186호의 '공감인물'편을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의 여성문화인상'을 받은 김재연씨가 돈벌이도 별로 안 되고 적성에 맞지 않으면 하기 힘든 해녀 일을 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고민이 많았겠죠. 하지만 오히려 다른 이들이 기피하는 해녀 일을 하며 마음이 건강해졌다고 밝게 말하는 김씨를 보며 나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젊은 청년들이 해녀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무열(28·학생·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독자 인터뷰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기사 뿌듯… 역사 이야기 더 실었으면"

홍대욱(43·직장인·경남 양산시 소주동)

회사원인 홍대욱씨는 3년 넘게 〈위클리 공감〉을 구독하는 애독자다. 정부정책들의 새로운 소식과 바뀌는 내용들을 바로 알 수 있어서 매번 챙겨본다. 특히 두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육아, 교육에 관한 정책기사는 더 꼼꼼히 읽는다.

186호에서 인상 깊었던 기사는

"기획특집-무역 1조 달러 기사가 반가웠습니다. 계속되는 세계 경기침체와 더불어 국내 경제도 어려운데 지난해에 이어 무역 1조 달러를 기록하고 세계 8위권에 진입했다니 정말 뿌듯합니다.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 내수 경기도 살아나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 눈길이 가는 기사는 어떤 게 있는지

"겨울철 에너지 절약'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최근 폭설이 내리면서 갈수록 날씨가 춥잖아요. 올겨울에는 전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뉴스도 많이 접하는데 나 자신부터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여나가는 의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에너지도 절약하고 더불어 탄소배출도 줄일 테니까요. 이 밖에 '옷맵시 캠페인'도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위클리 공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역사인물 읽기를 즐겨 봅니다. 평소 잘 모르던 내용, 인물을 만나는 것이 무척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위클리 공감〉에서 '이 달의 역사 인물, 문화 인물'이라는 코너를 만들거나 한 주에 있었던 역사 사건이나 세계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독자 인터뷰 신청받습니다. 〈위클리 공감〉을 읽으신 후 느낀 점을 간략한 자기소개, 연락처, 얼굴이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메일(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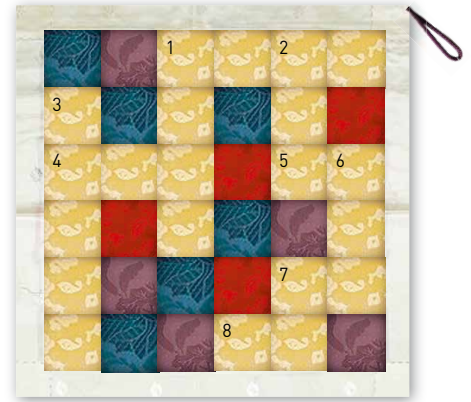
컬투! 심통사연 UCC 공모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자료를 활용하면서 '컬투!심통사연' 팟캐스트의 에피소드를 활용한 재미있고 쉽게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물을 공모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작의 저작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귀속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심평TV 홈페이지(www.hirat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모주제 | '컬투! 심통사연' 팟캐스트에서 심통사연 에피소드 MP3파일을 다운받은 후 해당파일을 사용하여 UCC 제작
접수기간 | 12월 21일까지
공모분야 | UCC
시상내역 | **1등** 1편 3백만원 **2등** 1편 2백만원 **3등** 1편 1백만원 **가작** 10편 20만원
제품규격 | 해상도 7백20×4백80(wmv파일), 1백MB 미만의 최고 화질
접수방법 | 심평TV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문의 | ☎ 02-705-6925, 02-705-6246

제2회 대한민국 선거 사진 대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회 대한민국 선거 사진 대전'을 공모한다. 공모주제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의 선거참여 및 선거관리의 희로애락, 정정당당한 선거운동 및 정책경쟁, 선거를 통한 화합과 축제분위기의 장 등 아름다운 선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electionfestival.com)를 참고하면 된다.

공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공모주제 |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내용
접수기간 | 12월 24일 18시까지
공모분야 | 사진
시상내역 | ▲예선-**금상** 1점 2백만원 **은상** 1점 1백만원 **동상** 2점 50만원 **입선** 20점 5만원 상품권 ▲본선- **대상** 1점 1천만원 **금상** 1점 5백만원 **은상** 3점 2백만원 **동상** 5점 1백만원
작품규격 | ▲크기-제한 없음(해상도 1천2백×1천6백 이상 권장) 용량-10MB 이내 ▲작품 촬영 후 보정 작업 없이 원본 사진 제출 ▲디지털 파일(필름촬영은 인화지 스캔 후 파일)로 제출
접수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출품자 주소지 관할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세종시의 경우 충남에 접수)
심사방법 | ▲16개 시·도별로 구분하여 작품을 접수하여 예선 실시(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예선 당선작(동상 이상)을 대상으로 본선 실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상)
문의 | ☎ 02-503-0863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공감퍼즐 몇 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12월 20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1.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란 뜻의 고사성어.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를 이르는 말이죠.
4.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갖 물건을 파는 가게.
5. 길이나 집을 잃고 헤매는 아이.
7.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8. 질병이나 재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

세로
1.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아울러 이르는 말은? 허례허식은 줄여야겠죠.
2. 술을 거르고 난 찌꺼기. 술OOO.
3. 부처의 힘으로 외적을 물리침, 해인사, 국보 32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6. 우리 민족의 대표적 민요로, 이번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죠.
7. 동서남북 네 방위.

〈weekly 공감〉 185호(11월 28일자) '공감퍼즐' 정답
가로 1 동절기 3 연탄 4 부성애 7 보온병 8 아리랑
세로 1 동탄 2 기부 3 연평도 5 성인병 6 캄보디아

〈weekly 공감〉 185호 '공감 퍼즐' 당첨자
박형호·인천시 연수구 송도2동
한명기·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이석호·경북 상주시 모동면
황인화·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백광진·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12월 7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2012년 6·25 전사자 합동 봉안식에서 의장대가 유골함을 봉송하고 있다. 매년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뒤 합동 봉안식을 통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한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25 전사자 합동 봉안식에 참석한 장병들이 발굴된 전사자들의 유품을 살펴보고 있다.

“조국의 품에서 이제 편히 잠드소서”

올해 발굴된 6·25 전사 국군유해 9백93위 국립서울현충원에 합동 봉안

전사자 유해 합동 봉안식은 매년 발굴된 유해 중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국군전사자를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상징적 의식이다.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2개 지역에서 발굴한 1천45구의 유해 가운데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것은 9백93위이며, 이 가운데 11위의 신원이 확인됐다. 유해발굴사업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7천9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를 발굴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12월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관으로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추진을 통해 수습한 국군전사자 9백93위에 대한 합동봉안식을 거행했다. 봉안식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김형기 현충원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경찰, 7개 보훈단체 대표 등 4백여 명이 참석했으며, 추진 경과 보고와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안된 전사자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5개 사단급 부대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칠곡, 철원, 양구 등 전국 62개 지역에서 연인원 10만여 명을 투입해 발굴한 1천45구의 유해 가운데 국군전사자로 확인된 9백93위이다.

전국 62곳서 연인원 10만여 명 투입 발굴

2000년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유해발굴사업은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매년 1천여 구 규모의 국군전사자를 발굴하는 등 지금까지 총 7천9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박신한(대령) 단장은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DNA)도 4천5백여 개를 확보하는 등 지금까지 2만2천여 개의 DNA 시료를 확보했다”며 “이러한 성과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특히 올해는 1953년 휴전협정이 체결된 후 62년 만에 최초로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 12구를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내로 봉환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원이 확인된 고(故) 이갑수 일병, 김용수 일병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0인 호국용사들은 미 7사단 소속으로 북한 장진호 전투에서 밀려드는 중공군의 공세에 맞서다 전사했다. 이들은 지난 2000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군에 의해 발굴돼 미국으로 옮겨졌다가 지난 5월 말 국내로 송환됐다.

아울러 6·25전쟁 발발 직후 우리를 돕기 위해 처음으로 투입되었던 미 24사단 소속 전사자 유해 2구를 충남 연기군에서 발굴한 뒤 미국과 공동감식을 거쳐 인도함으로써 이 땅의 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우방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신원확인엔 유가족의 DNA 시료채취 협조 필수

6·25전쟁 당시 사망한 국군은 13만7천8백99명, 부상자는 45만7백42명, 실종자는 2만4천4백95명에 이른다. 유엔군도 4만6백70명이 목숨을 잃었고, 10만4천2백80명이 부상했다. 안타까운 일은 전쟁 중에 목숨을 잃거나 실종된 호국용사 중 아직도 13만명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하고 남북의 이름 모를 산야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다.

박 단장은 “지금까지의 유해발굴 실적은 찾아야 할 호국용사 13만명의 6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며 “전사자 유해 소재를 알고 있는 6·25세대의 고령화와 급격한 지형변화 등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전사자의 직계 유가족을 비롯한 6·25 참전세대들이 생존한 동안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관련 조직과 예산을 증편하는 등 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중이다.

발굴된 국군전사자 유해는 합동 봉안식 이후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관실)에 일정기간 보관된다.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들의 DNA와 비교검사를 통해 신원확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60년 만에 애써 찾은 국군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국방부는 전사자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유가족의 유전자와 대조해야 하는데, 6·25 전사자 가족은 친가·외가의 8촌까지 가까운 보건소나 군 병원에 가서 DNA 시료채취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박 단장은 “더 많은 유가족 유전자 표본 확보를 위해 일반 국민은 물론, 현역장병을 대상으로 유가족 유전자 시료채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신원확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치신 그분들을 되살릴 수는 없어도 명예는 되살릴 수 있다는 일념하에 더 빨리 더 많은 호국용사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이상훈 기자

연합

지난 11월 15일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지적 장애인들이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있다.

"만원의 행복"… 입장권 '스페셜 패스' 사세요!

특별한 쿠폰 20장 포함… 전 경기 관람과 주변시설 할인 혜택 가능

50일도 채 남지 않은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이름만큼 특별한 혜택을 담고 있는 대회 입장권 '스페셜 패스'의 발매도 시작됐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여는 지적장애인들의 제전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은 물론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개막을 앞두고 지난 11월 27일 입장권 판매가 시작됐다. 스페셜올림픽 입장권에는 '스페셜 패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입장권의 가격은 1만원이다. 이름만큼 특별한 혜택이 담겨 있다.

일단 티켓 한 장으로 개·폐막식을 제외한 본 대회의 전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오는 2013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강원도 평창 및 강릉 일대에서 열린다. 입장권에는 특별한 쿠폰 20장이 포함되어 있다. 여행, 스포츠, 레저 활동을 위한 장소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다.

예를 들면 알펜시아와 용평리조트의 스키리프트, 스키렌털, 눈썰매장을 이용할 때나 정선 레일바이크, 동해 바다열차, 송어축제 등을 이용하거나 참가할 때 최대 50퍼센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또 경기장 주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지 등 유료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대회기관 중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에 무료입장 할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 대회기간 중에는 대관령 눈꽃축제 등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있다.

어른 기준으로 한 사람이 쿠폰 20장을 모두 쓴다면 정상 가격(33만원)에서 최대 15만8천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대회 조직위 측이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 리조트 회사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협찬을 얻어냈다고 한다. 입장권은 티켓예매사이트 인터파크(www.interpark.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계스페셜올림픽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중·고교 학생들은 경기 관람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 원래 스포츠 경기 관람은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하지만 조직위 측은 스페셜올림픽 경기 관람 자체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고, 선수들을 응원하는 일이 곧 봉사라는 점을 강조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다.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입장권에는 각종 혜택이 있는 할인쿠폰이 스무 장 포함되어 있다. 쿠폰을 모두 사용하면 어른 기준으로 최대 15만 8천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승패가 아닌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는 올림픽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 선수들의 국제 스포츠행사다. 대한민국은 나가노('2005동계), 상하이('2007하계)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번째 개최국이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일본, 중국에 이은 여덟번째 개최국이다.

대회는 1968년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누이동생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슈라이버가 지적장애인의 스포츠활동을 지원하고 자질향상을 돕기 위해 미국 메릴랜드에서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한 1일 캠프'를 개최한 것이 시초가 됐다. 이후 시카고에서 제1회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열었고 2년마다 하계·동계 세계대회를 교대로 열고 있다.

현재는 IOC와의 협약을 통해 '올림픽' 용어를 사용하며, 동계올림픽과 비슷한 급의 국제스포츠로 성장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도 '3대 올림픽'으로 인정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 관장기구'(SOI)는 전 세계 7개 지역본부와 1백70개국 2백22개 회원 연맹을 보유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의 목적은 단순히 승패를 겨루는 게 아닌 '도전과 노력'이다. 지적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스포츠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대회 개최 목표다.

선수와 임원진들이 동계올림픽 종목(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을 통해 승패를 겨루고 비장애인들과의 이해를 넓힌다는 스페셜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경기에서는 1·2·3위에겐 메달, 나머지 모든 참가 선수에겐 리본을 달아준다.

또한 이번 스페셜올림픽은 국제사회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품격이 향상하고 스포츠 외교력이 커지는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페셜올림픽 개·폐회식이 ABC, BBC, CCTV, CNN, FOX 등을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될 예정이다.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 2002년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에 이어 스페셜올림픽 개최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국내 차원에서는 스페셜올림픽 개최를 통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투자비용(4백30억원)의 국내 소비와 외국인 방문객의 관광 등 지역사회의 경제적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스페셜올림픽을 알리기 위해 각계 인사들이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피겨여왕 김연아를 비롯해 히딩크 감독, 가수 원더걸스, 영화배우 김윤진 등이 이번 평창대회의 홍보대사로 뛰고 있다. 이외에도 피겨스타 미셸 콴, 영화배우 장쯔이, 수영선수 펠프스 등이 스페셜올림픽위원회(SOI)의 글로벌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김연아·장쯔이 등 유명인들 홍보대사 활동

이들은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연아는 미국 LA까지 날아가 2015년 스페셜올림픽 개최지 발표식에 참석했고, 지난 10월에 열린 D-100 기념 청계천 걷기대회 행사에도 참석했다.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다. K팝 공연과 난타 공연 등 한국의 대중문화를 선수단에게 보여주는 공연이 열린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공연과 신시 뮤지컬 컴퍼니가 펼치는 뮤지컬 갈라 공연, 국립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참여하는 스페셜 발레 갈라 등이 계획되고 있다. 〈말아톤〉, 〈레인맨〉 등 지적 장애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 상영도 마련되어 있다.

조직위가 가장 각별하게 역점을 두고 준비하는 것은 선수들의 안전이다. 지적장애인들이 참여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많은 CCTV를 설치했고 안전매트, 미아방지대책, 군 병력 상시대기 등의 안전대비책을 준비 중이다. G

글·하주희 기자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한땀 한땀 뜬 목도리로

1백13개국 선수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스페셜올림픽에 앞서 특별한 캠페인이 진행됐다. 바로 특별한 목도리, '스페셜 스카프'를 만드는 캠페인이다. 평창 스페셜올림픽의 후원사인 신한카드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스페셜 스카프 캠페인은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며 환영하는 행사다. 시민들이 직접 짠 목도리가 평창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할 1백13개국에서 온 3천3백여 명 선수단과 그 가족, 대회 관계자들의 목에 둘러지는 것이다. 지난 5월 신한카드가 스페셜 스카프 캠페인을 시작한 후 지난 12월 초 준비된 키트가 모두 매진됐다. 개인 참여도 활발했지만 단체 차원의 참여가 특히 활발했다고 한다.

개인·단체 참여 활발… 12월 초에 키트 매진

이번에 준비되는 스페셜 스카프는 초록, 빨강, 파랑 세 가지 색상이다.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마스코트 라(Ra), 인(In), 바우(Bow)의 색상을 형상화한 것으로, 서로 다른 색이 어울려 아름다운 무지개를 이루듯이 지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Rainbow)를 의미한다.

스페셜 스카프는 지난 2009년 미국 아이다호에서 개최된 스페셜올림픽 동계대회에서 '선수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 무엇일까' 하고 고민한 끝에 시작됐다. 5천개를 목표로 시작한 스카프 기부운동은 각종 신문과 온라인, 커뮤니티, 뉴스레터 등을 통해 미국 전역으로 급속도로 확산됐고, 호주 그리스 UAE 영국 푸에르토리코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마침내 6만개가 넘는 스카프가 조직위원회로 기증됐다.

스카프 뜨개질 참가자들 중에는 뜨개질학원생, 학교학생들, 주부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암 투병 중인 어느 여인이 직접 뜨개질해서 보내온 스카프를 비롯, 기증된 6만개의 모든 스카프에는 기증자 개개인의 사연과 동기, 다양한 뒷이야기가 담겨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 모두의 소중한 시간과 재능이 배어 있는 진정한 기부캠페인으로, 참가선수들이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기부로 기억된다.

지난 10월 29일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스카프 만들기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올림픽 출전 선수와 가족들에게 줄 목도리를 뜨고 있다.

평창 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을 참가 선수단과 그 가족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대표 어머니들인 각 여성단체와 장애인단체 어머니들을 모아 선수단에 전달할 스카프를 직접 제작하는 행사를 지난 10월 열기도 했다. G 글·하주희 기자

공공조달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신규 창업 중소기업들에 '실적 족쇄' 풀고 생산확인 기준 마련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월 29일 납품실적 증명을 폐지하고,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선박에 레미콘 생산설비를 장치해 해상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 제공하는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제품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를 구매해야 하며,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에도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까지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1백93개 품목)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실적증명을 반드시 갖춰야 했다. 이번에 실시된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납품실적 증명이 폐지되고,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마련됐다.

❶ 납품실적 증명 확인 폐지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사실상 어렵게 했던 납품실적증명 확인을 전면 폐지하고, 제품생산의 필수 요소인 전력사용량 및 원자재 구매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실질적인 직접생산을 확인하기 위해 생산, 검사설비의 작동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❷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기준 마련 개정안은 그동안 레미콘을 직접 생산하면서도 직접생산 확인 증명을 받지 못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마련했다.

확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검사성적서(사후확인) ▲배치플랜트(등록을 마친 선박에 설치되어 안전검사를 필하고 가동 중일 것)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은 도로, 교량, 항만공사 등 국가기간 산업 관련 공사 중 공공기관장이 해상 배치플랜트 레미콘의 납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공사현장 주변 중소기업의 납품 가능 여부와 비용절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공사다. 단, 공장 레미콘의 납품이 가능하고 해양 또는 해안선을 벗어난 공사 현장으로 육상운반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❸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확인기준 마련 개정안은 협동조합이 보유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공동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해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경우 해당 생산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해 직접생산 확인증명을 발급해주기로 했다. 종전까지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생산 시설 및 공정에 대한 세부설명을 추가하는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제도과 이현조 과장은 이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에 대해 "실질적인 생산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시설·장비, 생산인력 등 비현실적인 기준을 현실화해 공공조달시장의 진입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이범진기자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금형 공장에서 자동차 각 부위의 금형이 제작되고 있다. 금형을 비롯한 뿌리산업은 주력산업에 가려져 빛을 보지 못했으나 고부가치 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할 생태계 만든다

주조·금형 등 제조업의 자양분… 2017년까지 세계 6위 뿌리산업 강국으로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2017년까지 세계 6위의 뿌리산업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쌍둥이칼'로 유명한 독일의 헹켈, 자전거계의 페라리로 불리는 이탈리아 콜나고 자전거, 영국 파커 만년필, 스위스 롤렉스 시계.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튼튼한 뿌리산업의 토대 위에서 탄생한 세계적 명품들이라는 것이다.

뿌리산업이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으로,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등 다른 산업의 제조 과정에서 '공정기술'로 이용되며, 최종 제품의 품질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소다.

역사적으로 보면, 뿌리산업은 청동기시대 무기류·장신구 제작을 위한 주조에서 시작되어 제조업의 발전과 함께 산업의 양분 역할을 맡아왔다. 현대에 접어들어 뿌리기술은 첨단화·융복합화를 통해 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

신성장동력 산업 기술력 구현의 숨은 공신

국내 유일의 ITO코팅 전문업체인 유아이디는 터치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패널을 제작해 삼성 갤럭시탭 패널의 1백퍼센트, 애플 아이패드 패널의 40~50퍼센트를 공급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ITO란 패널 스크린에 터치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유리표면에 전류가 흐르도록 Indium-doped Tin Oxide(주석 산화물에 인듐이 도핑된 전도성 재료(ITO) 진공증착기술을 활용한 표면처리기술을 적용한 것이다.

금형 전문기업인 제일정공은 이중사출 기술(2개 이상 수지를 연속 사출성형하는 기술)을 활용하여 아름다운 곡선의 삼성전자 LCD TV '크리스탈 로즈'의 외장을 제작, 삼성 LCD TV가 2008년 북미시장 1위를 달성하는 데 숨은 공신 역할을 수행했다.

또 고부가가치 수출품인 자동차 엔진은 주조의 산물이다. 아랍에미리트 수출용 원전 핵반응기는 소성가공(Plastic working, 塑性加工)이 적용됐으며, 선박의 동체 결합에는 용접이 사용된다. 열처리와 표면처리 기술은 굴삭기 피스톤부터 반도체까지 고루 사용된다.

뿌리산업은 특히 로봇, 항공기,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술력을 구현하는 초정밀·고도 공정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뿌리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본, 독일, 미국, 중국 등도 2000년대 이후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3D산업 이미지 탈피… 투트랙 지원전략 수립

우리나라 뿌리산업의 국내시장 규모는 자동차·조선·IT 등 수요산업 시장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 약 7백94억달러(87조4천억원·이하 2010년 기준)에 이른다. 우리나라 뿌리기술 시장 수요의 44퍼센트를 국내 뿌리기업이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완성품업체 자체 기술 조달(35퍼센트), 수입(21퍼센트)으로 이루어진다.

뿌리기업들의 숨은 공로에도 불구하고, 뿌리산업 현황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전국의 2만4천9백97개 뿌리기업은 대부분 2~4차 협력사들이다.

뿌리기업 종사자 수는 약 26만명이며, 전체 제조업 종사자(3백41만명)의 7.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 이익률이 낮고(7~8퍼센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제조업 가운데 최저수준이다 보니 청년층이 외면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4명 중 1명꼴이고, 전체인력 중 40~50대가 6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뿌리기업의 영세성은 연구개발(R&D) 투자역량 부족에 따른 혁신역량 저하, 마케팅 능력 취약, 열악한 근무환경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기술력, 영업이익률 등 뿌리기업의 경쟁력은 다른 산업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이 첨단산업과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여, 오는 2017년까지 세계 6위의 뿌리산업강국(현재 세계 14위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했다. (표 참조)

지식경제부가 지난 12월 3일 제1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뿌리산업 전반의 공정혁신·R&D·인력·경영·복지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뿌리기업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지원전략을 담고 있다.

뿌리산업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확대·조정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R&D 시스템 구축-뿌리기업 공정혁신 촉진-경영·근무 환경 개선-인력 선순환 구조 정착으로 이어지는 뿌리산업 진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G

글·박경아 기자

6대 뿌리산업

	정의
주조	고체 상태의 금속을 액체로 녹여 틀 속에 주입, 냉각해 일정 형태의 금속제품을 만드는 기술
금형	동일 형태와 크기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금속재료로 된 틀을 제작하는 기술
소성가공	재료에 외부의 힘을 가해 일정 형태의 제품으로 가공하는 기술
용접	금속 또는 비금속으로 제조된 소재·부품에 열이나 압력을 가해 결합시키는 기술
열처리	금속 소재와 부품에 가열 및 냉각 공정을 반복해 그 물질의 성질을 향상시키는 기술
표면처리	소재부품의 표면에 금속 혹은 비금속을 물리·화학적으로 부착시켜 미관이나 내구성을 개선시키고 표면 기능성을 부여하는 기술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년) 주요 내용

뿌리산업 지원 시스템 구축

- 뿌리산업진흥센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확대 조정
- 뿌리산업 6개 업종별 조합의 역할 강화, 현장 지원체제 개편

R&D 시스템 구축

-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세계적 경쟁력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뿌리기업 전반의 R&D 역량 제고
- 첨단산업군과의 기술개발 연계 촉진

뿌리기업 공정혁신 촉진

- 연속공정 자동화와 첨단화로 생산성 제고
- 제조·품질관리용 IT솔루션 무상제공, 생산공정 디지털화 등으로 IT융합 통한 첨단화
- 멘토제 방식으로 작업환경과 생산·설비 개선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경영·근무 환경 개선

- 뿌리산업 집적지의 특화단지 지정, 협동화 지원으로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 경영안정자금과 퇴직연금과 복지사업 등 근로복지환경 개선 지원

인력 선순환 구조 정착

- 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 우수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뿌리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
- 고급 연구인력 채용과 산업기능요원 배정 지원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13일 미국 하원 본회의장에서 의회합동연설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FTA가 양국 간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역설했다.

49차례 84개국 순방

지구 19바퀴 돌며 글로벌 리더십 구축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49차례의 순방을 통해 총 84개국을 방문했다.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이 머문 지역은 1백10개 지역에 달하며, 머문 시간은 2백32일에 달한다. 비행거리는 무려 75만8천4백78킬로미터에 달한다. 이는 지구를 19바퀴 도는 거리다.

1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10월 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하고 있다. 2 김윤옥 여사가 2011년 10월 13일 버지니아 애넌데일 고등학교에서 미셸 오바마 여사와 함께 학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임 5년간 지구촌을 이끄는 G2 국가뿐만 아니라 EU, 아세안, 중남미 국가 등 전방위 글로벌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영역이 기존의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의 전략적 소통과 경제협력을 강화해 한·중 교역액 2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도네시아·아랍에미리트(UAE)·러시아 등을 찾아 활발한 자원외교를 폈다. 그 결과 이 대통령은 '수주(受注)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8차례 방미… 전략동맹의 미래 청사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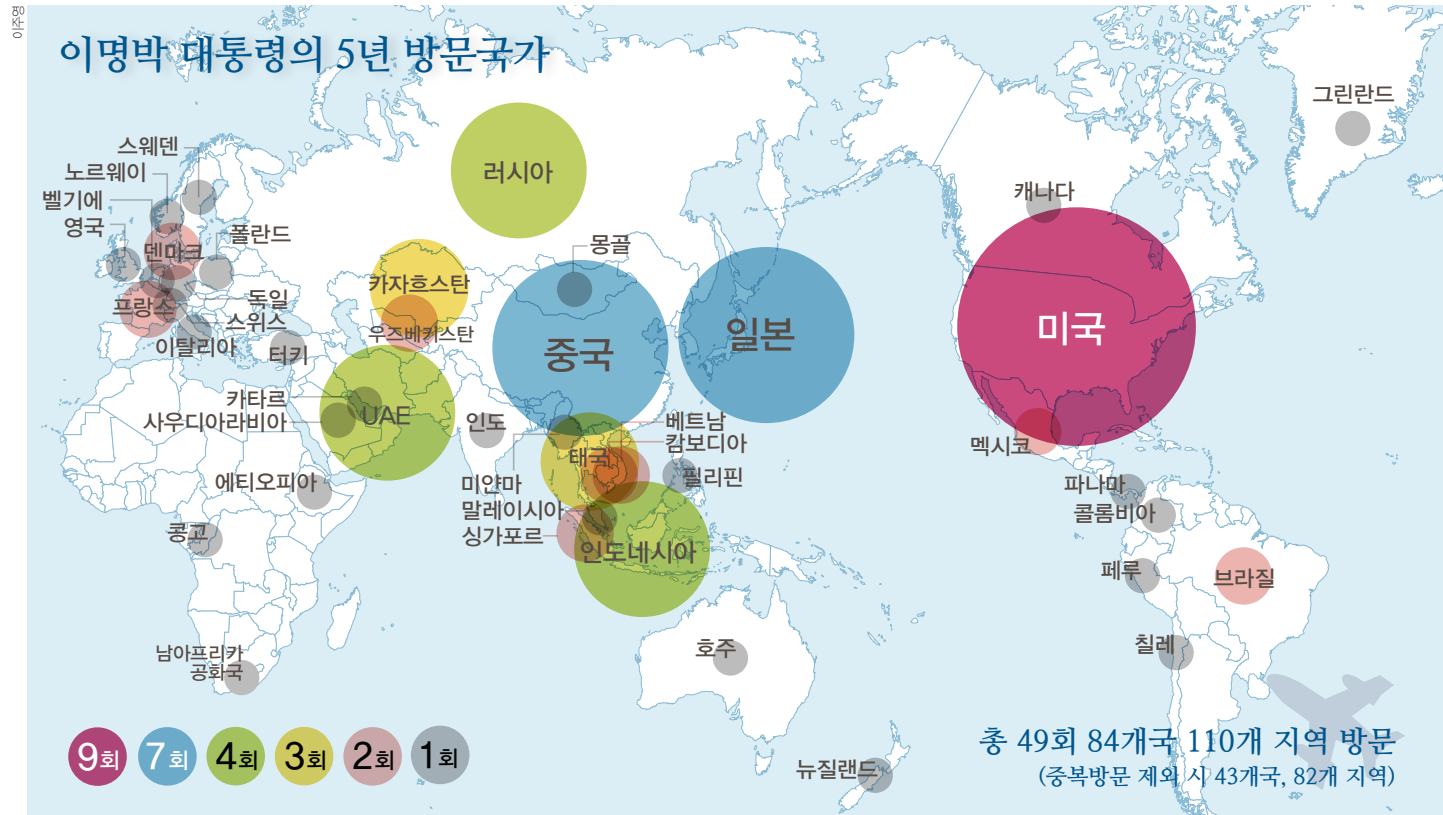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방문한 국가는 미국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총 8회 방문해 어느 정권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 한·미 간 신뢰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최상의 동맹관계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대통령은 2008년 2월 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상과 11차례에 걸쳐 회담했다. 이 중 7차례가 오바마 대통령과 가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18~19일(한·미정상회담), 2010년 11월 11~12일(서울 G20정상회의), 2012년 3월 26~27일(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각각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2011년 10월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양국관계가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당시 순방을 통해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영역이 기존의 안보 분야에서 경제 분야로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두 나라에서 범세계적 문제로 심화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미 두 나라는 정상외교뿐만 아니라 장관급 회담, 외교·국방(2+2) 장관회담 등 다양한 협의채널을 동반했다. 특히 2009년 6월 있었던 '동맹미래비전' 채택을 통해 양국은 변화하는 안보·경제 환경에 부합하는 전략동맹 미래상의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두 나라 사이에 채택한 '동맹미래비전'은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안보동맹 발전평가 및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했고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력을 제공키로 하는 등 미국의 공고한 대한(對韓)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 핵·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유도하며 한반도 미래상 창출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키로 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진전을 위한 협력 및 녹색성장·우주협력 등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역내 평화·번영 증진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두 나라는 이 같은 동맹발전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에

1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5월 14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 2011년 1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교토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도 두 나라 간의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심화·발전시키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공고한 연합방위태세 및 안보협력을 유지하고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상호이익(한·미 FTA 조기발효 등)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범세계적 평화·번영에 동참하는 토대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

20차례 정상급 회담… 외교·안보 전략적 소통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방문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다자회의 등을 포함해 가장 많이 방문한 도시는 중국 베이징이다. 역사적으로 오랜 유대관계를 다져온 한국과 중국은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양호한 발전을 지속해왔다.

한·중 두 나라는 고위급 교류를 확대해 정상급 회담 20차례, 외교장관 회담 27차례를 개최하는 등 이명박정부 들어 가장 빈번하게 고위급 교류를 다져왔다. 이 대통령은 총 11차례에 걸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 역대 대통령 중 중국과 가장 많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역대 대통령 최초로 재임 중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중국과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했다. 양국은 5차례에 걸친 외교부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으며, 2011년 국방부 차관 전략대화를 신설하는 등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했다.

또 경제협력을 강화해 두 나라 교역액이 2천억달러를 돌파했다. 양국은 2015년까지 교역액 3천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1천6백83억달러 규모였던 양국 교역액은 2011년 2천2백7억달러 규모로 확대됐으며, 이에 따라 인적교류도 확대돼 2008년 5백13만명 규모였던 상호 방문자 수가 2011년 6백52만명으로 증가했다.

일본

독도 냉각 이전엔 19차례 정상 만나 긴밀 협조

지난 5년간 한·일관계는 정치·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기조를 유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1년 12월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19차례에 달하는 정상회담과 30차례가 넘는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고위급 소통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왔다.

특히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양국 간 우호·협력을 다지고 인도적 차원의 도움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일 지원활동을 전개했다. 일본은 이에 발맞춰 도서협정 발효에 따른 조선왕조 도서를 반환하는 등 양국 간 우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일 두 나라는 인적·문화교류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취업관광사증(WHP) 쿼터를 2009년 7천2백명 규모에서 2011년 1만명 규모로 확대했으며 ▲한·일축제 한마당을 개최하는 등 문화교류를 강화해 2008년 4백76만명 규모였던 상호 방문자 수를 2011년 5백여만명 규모로 증대시켰다. 긴밀했던 양국 관계는 그러나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변화를 맞았다.

러시아

정상회담 정례화 통해 전략적 실질협력 높여

2008년 9월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과 양국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내실화 계기를 마련했다.

두 나라는 2011년 사상 최초로 양국 교역액 2백억달러를 돌파했으며, 이 같은 두 나라 간 교역·투자 규모는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1백51억달러였던 한·러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08년 1백81억달러, 2010년 1백77억달러를 거쳐 2011년 2백11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1992년 러시아연방 출범 이후 2010년까지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규모는 수출 1억1천8백만달러에서 2010년 77억6천만달러로 약 66배 증가했으며, 수입도 7천5백만달러에서 99억달러로 1백32배의 성장을 기록했다.

두 나라는 철도, 에너지, 녹색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3대 신실크로드 비전'을 바탕으로 에너지·자원, 극동 시베리아 개발, 러시아 경제 현대화 등 전략적 실질협력관계를 증진했다. 이를 통해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건설적 기여를 했으며,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지속적 협력관계의 기틀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1 제20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9월 8일 APEC 특별회의장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2 2012년 11월 19일, 제15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이 아세안 회원국 정상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3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012년 11월 21일 알-라우다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회담하고 있다.

2010년 10월 6일,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및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박 대통령, 반 롬푸이 EU 상임의장, 바로주 EU 집행위원장.

EU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유럽의 지지 확보

세계 최대 경제권인 유럽연합(EU)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5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과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대통령은 2010년 10월의 한·EU FTA 서명과 2010년 5월의 한·EU 기본협정 서명을 기반으로 제5차 한·EU 정상회담(2010년 10월, 브뤼셀)에서 유럽연합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2011년 7월 잠정 발효된 한·EU FTA 이후 유럽연합과의 교역액이 4백76억달러(2011년)에서 4백95억달러(2012년)로 3.9퍼센트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정부는 대EU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유럽의 지지를 확보하고,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기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세안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대상으로 관계 확대

한국과 아세안(ASEAN)은 이명박 대통령 재임 5년간 포괄적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아시아의 중심권역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의 관계를 증진시켰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진 것은 경제 협력 강화이다.

한·아세안은 FTA를 기반으로 교역·투자를 크게 확대, 아세안이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이자 EU에 이은 우리나라 제2의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2009년 7백19억달러에 머물렀던 양측의 교역규모는 2010년 9백73억달러를 거쳐 2011년 1천2백50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명박정부는 또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협력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공고한 관계를 구축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이러한 상호간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0년 한·아세안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 전환은 최대 성과

이명박 대통령이 5년간 이룬 두드러진 외교적 성과는 우리나라가 개발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빈국 출신 국가로서는 사상 최초로 선진 공여국의 협의체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는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

이를 통해 '나눔과 기여를 실천하는' 선진 공여국으로서의 위상을 수립한 우리나라는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고, 2010년 10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수립했으며, 2008년 8천9백억원 규모였던 공적개발원조(ODA) 지원금을 2011년 1조6천6백억원 규모로 86퍼센트나 확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재임 중 마지막 해외 순방지인 캄보디아와 UAE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한·아세안, 아세안+3, EAS에 잇따라 참석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중·일 3국 FTA 협상개시를 발표했다. 또 UAE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건설과 유전개발 사업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에너지 자주개발률(자원의 수입물량 가운데 자국이 개발 및 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자원의 물량비율)을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적극적 자원외교를 통해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전략지역 진출기반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석유·가스의 경우 2007년 4.2퍼센트에 불과했던 자주개발률은 2011년 14퍼센트에 근접했으며, 2012년에는 20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3년 3.1퍼센트에서 2007년 4.2퍼센트로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괄목할 만한 신장이란 평가다.

또 유연탄, 우라늄, 철광, 동, 아연, 니켈 등 6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액은 2007년 39억달러 규모에서 2011년 1백21억달러 규모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주개발률은 2007년 18.5퍼센트에서 2011년 29퍼센트 규모로 급상승했으며, 2012년에는 32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증 간소화로 해외여행 편의 높여

해외로 진출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사증협정 체결'을 확대한 것도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성과로 꼽힌다. 7백만 재외국민 및 1천3백만 해외방문자 시대를 맞아 정부는 주요 14개국과 사증 간소화 협정을 체결했으며, 우리 청년들의 해외진출 장려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11개국과 워킹홀리데이협정 체결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2008년 11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증 없이 전자여행 허가만으로 간편하게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한시적 근로협정을 맺어 우리 기업인들의 장기비자 취득 및 체류 편의를 제고하기도 했다. G

글·이범진 기자

블라디보스토크의 루스키섬과 내륙을 잇는 다리. 지난 9월 열린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어졌다.

‘기회의 땅’ 극동러시아… 新북방시대 열자

풍부한 자원 바탕 역동적 변화… 미래 대륙시대 대비해야

지난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다. 세계 정상들이 참석, 화려한 외교 이벤트를 연출했다. 극동러시아의 심장부 블라디보스토크는 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2기 푸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극동개발부를 연방부처로 신설하기도 했다. 극동러시아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도 신북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극동러시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11월 16일 아시아나가 우리 국적기 중에서는 대한항공에 이어 두번째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취항했다. 이는 올해 초 러시아 정부의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 개방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러시아 내 4백개 공항 중 유일한 개방형 공항이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이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극동러시아에는 대내외 환경변화가 다양하고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가 극동 개발과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진출을 국가적인 역점과제로 내세우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다만 지금은 정치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추진해온 대규모 에너지 사업들이 결실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올해만 보자. 우선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블라디보스토크는 개벽했다고 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5월에는 2기 푸틴 정권 출범에 발맞추어 극동개발부를 연방부처로 신설했다. 러시아 최고 석학들의 모임인 발다이 포럼은 지난 8월 러시아연방 3개 수도론을 제시했다.

일일생활권 가능한 지역적 특성 가져

즉 모스크바는 정치와 외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문화와 교육,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는 경제수도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3개 수도론은 그 실현 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만큼 극동러시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극동러시아는 중국·북한과의 협력도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유대인 자치주, 아무르주와 중국 동북 3성 간에 철교를 연결 중이며, 하바롭스크시 인근에 있는 아무르강 내 ‘발쇼이 우수리스크’라는 큰 섬을 경제특구로 공동개발하고 있다. 북·러 국경도시 핫산과 북한 나진과의 철도 연결도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 중국의 나진·선봉 진출과 함께 러시아의 두만강 유역 진출은 한반도가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역동적 변화의 시점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먼저 극동러시아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첫째, 극동러시아는 신 대륙시대를 여는 지역이다. 극동러시아와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소위 3각 협력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평화통일 이후 대륙시대를 대비하는 최적의 지역이기도 하다.

협력틀 구축과 전문가 양성 서둘러야

둘째, 극동러시아는 일일생활권과 단일경제권 지역이다. 한국과 극동러시아 간 경제통합도 더욱 가시화될 것이다.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하는 시대도 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극동러시아는 식량, 에너지, 수자원과 임산자원, 해양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북극 항로, 북극해 자원개발도 극동의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러시아가 보유한 우주항공, 기초과학기술도 큰 장점이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비전과 전략과 협력모델은 무엇일까?

첫째, 한·극동러시아 간 협력틀(플랫폼)의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 한국과 극동러시아 간 공동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추진계획이 담긴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이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 현재 거론되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듯싶다.

둘째, 상호 이해와 신뢰 제고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아직도 일부 한국 기업들은 극동을 다소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다. 소위 ‘4무’가 있다고 본다. 극동 진출을 지나치게 무서워한다. 극동진출 중요성을 무시한다. 무관심하기도 하다. 극동의 정확한 실상에 대해 무지하다. 러시아는 한국이 교역규모에 비해 투자가 저조하다고 한다. 투자환경이 잘되어 있는데 왜 한국은 투자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지나치게 장고를 한다고도 한다.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섭섭한 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셋째, 극동러시아를 포함한 대(對)러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인적, 물적, 문화적, 법·제도적 인프라가 수반되어야 한다. 대(對)러시아 외교 중요성에 걸맞은 전문가 양성과 인력배치가 있어야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중앙광장.

러시아 내 친한 인맥을 구축하는 사업도 동시에 전개해야 한다. 한국학도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상응한 예산 지원도 수반돼야 한다.

극동러시아를 경제, 문화, 안보를 통합한 수평적 시각에서 전략적으로 보아야 한다. 한·극동러시아 양자 차원과 함께 동북아시아와의 관계라는 대외적 스펙트럼도 넓혀서 보아야 한다. 동시에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미래를 통합한 수직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더 나아가 통일이 되어 본격적인 대륙시대가 열릴 수 있는 미래도 동시에 보아야 한다.

분야와 분야를 넘나들고 시대와 시대를 넘나들고 지역과 지역을 넘나드는 유연하고 전략적인 시각으로 극동러시아를 보아야 한다.

극동러시아는 新북방시대 중심 인식을

최근 극동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에는 소위 거대한 체스게임이 본격화된 양상이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 북방외교를 전개하여 외교 지평을 크게 넓힌 바 있다. 이제 새로이 신북방외교를 전개하여 거대한 체스게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또 한 번 외교의 지평을 넓혀야 할 때다.

우리가 원하는 북방시대-대륙시대라는 미래를 우리 스스로 그려야 한다. 그리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주도적이고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역동적인 발전에 비추어 이제 우리도 자신감을 갖고 이러한 큰 꿈의 시대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극동러시아는 新북방시대를 여는 중심이다. 더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G

글·이양구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

‘사돈의 나라’ 베트남… 양국발전 기회 삼자

일본 자본과 중국 화교 네트워크에 못지않은 든든한 후원군

올해는 한국과 베트남이 월남전이라는 현대사 문제를 극복하고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20주년 되는 해다. 1992년 수교 당시 5억달러에 불과하였던 양국 교역규모는 2백억달러로 늘었다. 한국은 베트남 해외투자국가 가운데 1, 2위 자리를 다툴 정도로 도약하였고, 3천여 한국계 진출기업은 그 수나 수익 면에서 여타 국가 기업들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교역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현지 거주 교민도 13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는 화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인구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빠져나간 빈 공간은 현재 12만 명에 달하는 베트남 사람들로 자리바꿈되었다. 산업연수생 6만5천 명, 베트남 신부 5만명, 유학생 5천명이 그 공간을 메우고 있다. 이 역시 한국에 거주하는 민간 외국인 가운데는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두 번째 규모다.

이렇듯 짧은 기간 동안 두 나라의 관계가 괄목할 만큼 성장하기까지는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을 국가발전 모델로 삼아 우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하는 베트남의 열망을 꼽을 수 있다. 오랜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 이제 1인당 국민소득 1천4백달러에 달한 개발도상국가 베트남에게는, 한 세기 이전에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서구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다. 그렇다고 지척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은 국가규모에 차이도 있고, 경제발전 과정이 아직은 충분히 검증된 것이 아니기에 따라가기에는 불안하다.

한·중·일 3국의 주도권 다툼 더욱 커져

이에 비하여, 한국은 국토면적이나 인구규모가 비슷하고, 또 당대에 국가발전 과정을 직접 목도하였기에 구체적으로 눈에 잡히는 대상이다. 반세기 전에는 상황이 비슷했던 한국이 지속된 평화로 국가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던 반면, 베트남은 월남전 종전 후에도 계속된 중·월 전쟁과 경제 제재 후유증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벤치마킹하기에 부담이 없다.

사실 아세안 지역 중 베트남만큼 ‘메이드 인 코리아’를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아세안은 일본의 뒷마당이라고

수교 20년을 맞은 한국과 베트남은 2백억 달러의 교역규모와 5만쌍의 다문화 결혼 등으로 두 나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본 자본과 제품, 문화가 생활 속에 널리 퍼져 있다. 중국 역시 화교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누적된 영향력이 상당하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한국의 놀라운 약진을 보며, 이를 좌시하다가는 그간 누려온 우월적 기득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일본과 중국은 아세안 한류의 원점인 베트남에서 판세를 뒤집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베트남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간에 주도권 장악을 위한 각축이 심화될 것이다.

다행히 한국에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우리 편이 되어줄 든든한 후원군이 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들, 특히 가정을 이룬 5만 쌍의 한국·베트남 가족이 바로 그들이다. 더욱이 이 숫자는 매년 7천 쌍씩 늘고 있다. 덕분에 한국과 베트남은 단순한 교역 대상국 이상의 혈연으로 맺어진 사돈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2세들로 인해 한국과 베트남은 엄마나라, 아빠나라가 되었다.

공자는 차국의 도를 묻는 질문에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 답한다. 가까이 있는 이가 좋으면 먼 곳에 있는 이는 절로 찾아온다는 것이다. 세상 이치가 이럴 것이다. 한국과 베트남이 오랫동안 같이 가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살림살이가 좀 낫다고 우쭐대지 말고, 옆에 다가온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 바로 답이다. G

글·금기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정책과장)

1 ‘위기와 기회의 땅, 그린란드’를 주제로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일룰리사트 빙하지역을 방문했을 때 찍은 것들이다.
2 사진전을 찾은 어린이들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린란드의 해빙현상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북극 그린란드에서 녹색을 보다

광화문 녹색성장체험관에서 12월 16일까지 그린란드 주제 사진전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와 함께 12월 16일까지 서울 세종로 KT 광화문빌딩 녹색성장체험관에서 〈위기와 기회의 땅, 그린란드〉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개최 중이다.

이번 사진전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초에 방문한 그린란드 일룰리사트의 기후변화 현장을 국민과 함께 공유,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 해빙 등 기후변화의 실상과 녹색성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인류에게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인 북극권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방문현장 국민과 공유

사진전에 소개된 작품들은 이 대통령이 그린란드 일룰리사트 빙하지역을 방문했을 때 촬영한 사진들로,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북극지역 빙하의 생성과 소멸의 장엄한 과정을 보여준다. 그린란드 일룰리사트 빙하 피오르는 2004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빙 현상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보려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다.

이번 사진전에는 오는 12일 방한하는 그린란드 쿠픽 벤데시 클라이스트 총리가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클라이스트 총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한국·그린란드 간 기후변화연구, 교육, 천연자원 등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녹색성장위원회 홍보과 박현정 전문위원은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 및 기후변화 관계자들이 이번 사진전을 관람해 위기의 땅인 동시에 기회의 땅인 그린란드를 비롯한 북극권의 기후변화와 친환경적인 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

글·이범진 기자

전시장 한켠 ‘녹색성장체험관’ 마련

친환경 생활시설 직접 체험할 기회

전시장 한켠에는 ‘녹색성장체험관’이 마련돼 있다. 체험관에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는 미래형 자동차로 꼽히는 수소연료 자동차(FCEV; Fuel Cell Electric Vehicle) 모델과 전기자전거(만도, 삼천리), 차세대 중소형 원자로인 ‘SMART 원자로’ 모형,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념도 등과 함께 에너지 절감형 미래 주택인 ‘그린홈’ 체험시설 등이 마련돼 있다. 그린홈 체험시설에서는 지열냉난방 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진공단열재 등과 함께 절수형 샤워기, 삼중유리창 등을 통해 친환경 생활시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확정된 지난 12월 6일 강원도 정선에서 등재를 축하하는 아리랑 공연이 열리고 있다.

한민족의 '아리랑', 세계인의 '가락' 되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 "여러 세대 거쳐 재창조 전승" 높이 평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한을 잘 담고 있는 노래 '아리랑'이 한민족을 넘어 '인류의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을 더 많이 알리고,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슬픔과 한을 노래로 승화한 아리랑 정신이 온 인류에게 알려지는 날이 머지않았다.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6일 새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에서 우리 정부가 신청한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했다. 중국은 2011년 옌볜조선족자치주의 아리랑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발표, '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에 올리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았지만, 이번에 등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유네스코는 아리랑이 특정 지역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 공동체에서 세대를 거쳐 재창조되고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점을 주목했다. 우리 정부가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를 갖췄고 등재 과정에서 학자와 연구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남북 공동 등재 무산… 6월 단독 신청

이는 등재 결정에 앞서 지난달 심사 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가 제출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심사보조기구는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의미의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당시 기구는 "아리랑이 다양한 사회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창조되며 공동체 정체성의 징표이자 사회적 단결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아리랑이라는 하나의 유산에 대단한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아리랑의 등재로 무형유산 전반의 가시성이 향상되고 대화 증진, 문화 다양성 및 인간 창의성에 대한 존중 제고 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2009년 8월, '정선아리랑'을 가곡·대목장·매사냥 등과 함께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 목록에 올렸지만, 연간 국가별 할당 건수 제한 방침에 따라 정선아리랑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남북 공동으로 한반도 전 지역 아리랑의 등재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받쳐주지 않아 지난 6월 우리 정부 단독으로 등재 신청서를 냈다.

문화재청,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 마련

이날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가 아리랑의 등재를 확정한 직후 중요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보유자인 이춘희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은 회의장에서 아리랑을 직접 부르며 등재 확정에 화답했다.

인류무형유산에 오른 아리랑은 정선아리랑이나 진도아리랑처럼 특정 지역의 것이 아니라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노래는 모두 포함된다. 1896년 미국 선교사 호머 헐버트에 따르면, 아리랑은 "포구의 어린애들도 부르는 조선인의 희로애락이 녹아 있는 노래"였다. 1926년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주제곡으로 쓰이면서 일제 지배에 억압당하던 조선인의 가슴에 저항의 불을 지폈다.

문화재청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아리랑 전승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6일, 2013년부터 5년간 3백36억원을 들여 ▲아리랑 아카이브 구축 ▲아리랑 상설·기획 전시 ▲학술 조사 및 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 아리랑 축제 지원 등 '아리랑 전승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 아리랑의 국가무형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정선아리랑'만 강원도 지정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돼 있다.

2013년 9월 전주에 개관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 아카이브에 국내외 아리랑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와 전승단체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아리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리랑을 주제로 한 해외기획 공연도,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위주로 했던 연 1회 공연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선진국으로 확대하여 연 2~3회로 할 예정이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고려인·조선족 등 해외이주민, 해외입양가정 등을 대상으로 아리랑을 테마로 한 전통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민족 아리랑 센터' 설립계획도 눈에 띈다. 아리랑센터는 재외동포 7백26만명을 비롯 다문화 구성원, 해외입양자, 탈북주민 등 7백84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문화 교육기관이다.

아리랑에 대한 학술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늘릴 예정이다. 현재 민간연구자, 학계 차원에서 아리랑을 학문으로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으나 아리랑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아리랑을 연구하는 학자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승활성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정기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해외 한민족의 아리랑을 비롯한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를 지속 조사하고, 전승자의 구술을 채록하고 사진·음반물을 수집하는 등 아리랑 조사·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글·하주희 기자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이춘희(왼쪽) 명창은 지난 6일(한국시각) 파리에서 아리랑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후 아리랑을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 오른쪽은 김찬 문화재청장.

지역별 아리랑 전승단체 현황

단체명	지역	단체명	지역
정선아리랑보존회	강원 정선	중원마수리농요보존회	충북 충주
진도아리랑보존회	전남 진도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서울 종로
밀양민속예술보존회	경남 밀양	중요무형문화재 경기민요	경기 용인
문경새재아리랑보존회	경북 문경	한국경기소리보존회	경기 과천
영남민요아리랑보존회	대구 중구	예천아리랑창극공연단	경북 예천
평창아라리보존회	강원 평창	정선 아라리배움터	강원 정선
영남민요연구회	대구 동구	정선아리랑연구소	강원 정선
청주아리랑보존회	충북 청주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서울
태백아라레이보존회	강원 태백	국립국악원	전국
공주민요연구회	충남 공주		

※ 아리랑 전승단체 현황은 학술조사를 통해 더 확대될 수 있음 **자료** 문화재청

종묘제례부터 아리랑까지 15건

한국인의 문화적 창의성 세계가 인정

유네스코(UNESCO)는 지난 2003년부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의거해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국의 무형유산을 등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현재까지 '아리랑'을 포함한 총 15건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유산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5. 18)
제사를 중시한 조선 왕실의 의식과 음악

종묘는 조선시대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나라에 공적이 있는 공신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종묘제례는 왕실 차원에서 거행하는 장엄한 국가제사이며, 임금이 친히 받드는 존엄한 길례였다.

유교가 국가의 근본이념이었던 조선시대에는 조상에 대한 숭배를 인간의 도리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법도로 여겨 제사를 특히 중시했다. 그래서 예로부터 종묘와 사직을 세우고 나라를 건국하고 번영시킨 왕과 왕실의 조상과 국가 발전에 공헌한 문무대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종묘제례악은 종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장엄하게 치르기 위하여 연주하는 기악(樂)과 노래(歌), 춤(舞)을 말한다. 이는 조선 세종 때 궁중회례연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던 보태평(保太平)과 정대업(定大業)에 연원을 두고 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약화되었으나 광해군 때 점차 복구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조선DB
종묘제례

판소리(2003. 11. 7)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솔로 오페라'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이 고수(북치는 사람)의 장단에 맞추어 소리(창), 아니리(말), 너름새(몸짓)를 섞어가며 구연(口演)하는 일종의 솔로 오페라다.

판소리는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피지배층 삶의 현실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와 시대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판소리는 모든 계층이 두루 즐기는 예술로, 판소리를 통해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조절과 통합의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릉단오제(2005. 11. 25)
영동지역에서 벌어지는 독창적 풍속축제

강릉단오제는 음력 4월부터 5월 초까지 한 달에 걸쳐 강릉시를 중심으로 한반도 영동지역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통축제이다.

조선DB
강릉단오제

음력 4월 5일 신주빚기로 시작하여 4월 15일에 대관령에 올라가 국사성황사에서 성황신을 모셔 강릉시내 국사여성황사에 봉안한 뒤 5월 3일부터 7일 저녁 송신제까지 강릉시내 남대천 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단오제 행사를 벌이는, 장장 30일 이상에 걸친 축제다. 제례, 단오굿, 가면극, 농악, 농요 등 예술성이 뛰어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과 함께 그네뛰기, 씨름, 창포머리감기, 수리취떡먹기 등 한국의 역사와 독창적인 풍속이 전승되는 축제의 장이다.

남사당놀이 영산재

강강술래(2009. 9. 30)
노래·무용·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예술

강강술래는 노래(song), 무용(dance), 음악(music)이 삼위일체의 형태로 이루어진 원시종합예술이다. 춤을 추는 여성들 중에서 노래 잘하는 한 사람이 설소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 선후창의 형태로 노래하며, 노랫소리에 맞춰 많은 여성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춤을 춘다.

전통적으로 강강술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기인 설, 대보름, 단오, 백중, 추석, 9월 중구 밤에 연행되었으며 특히 추석날 밤에 대대적인 강강술래판이 벌어졌다. 밤을 새워가며 가사를 바꾸어 부르는 노랫말은 여성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는 민중의 시로 매우 문학성이 풍부한 구비문학이기도 하다.

영산재(2009. 9. 30)
영혼이 극락왕생토록 하는 49재의 한 형태

조선DB
판소리

영산재는 49재(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제사)의 한 형태로, 영혼이 불교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극락왕생하게 하는 의식이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회상인 영산회상을 오늘날에 재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전에는 사흘 낮과 밤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근래에는 규모가 축소되어 하루 동안 이루어진다.

연합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남사당놀이(2009. 9. 30)
서민층 대상 원형공간서 벌이는 공연놀이

남사당놀이는 꼭두쇠(우두머리)를 비롯해 최소 40명에 이르는 남자들로 구성된 유랑연예인인 남사당패가 농·어촌을 돌며,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조선 후기부터 연행했던 놀이이다.

남사당놀이의 특징은 풍자를 통한 현실비판성을 담고 있으며,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놀이를 벌일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한 곳의 등·퇴장로를 제외한 원형 공간만 있으면 주위에 구경꾼들이 앉아 공연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놀이판은 철저히 열린 판이 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9. 30)
제주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 담긴 굿

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제주 어민에게 '영등굿'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영등 시기가 돌아오면 제주도 곳곳에서는 영등굿을 행하며, 바다의 평화와 풍어를 기원한다. 이 수많은 영등굿 중에 건입동 칠머리당에서 펼쳐지는 굿이 바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로 지정된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다. 건입동은 제주도의 작은 어촌이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2009년 9월 30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조선DB
강강술래

처용무

매사냥

처용무(2009. 9. 30)

신라시대 설화에 바탕한 악운을 쫓는 춤

처용무란 처용 가면을 쓰고 추는 춤을 말한다. 궁중무용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추는 춤으로, '오방처용무'라고도 한다. 통일신라 헌강왕(재위 875~886) 때 살던 처용이 아내를 범하려던 역신(疫神 : 전염병을 옮기는 신) 앞에서 자신이 지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춰서 물리쳤다는 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춤의 내용은 음양오행설의 기본정신을 기초로 하여 악운을 쫓는 의미가 담겨 있다.

춤사위는 화려하고 현란하며, 당당하고 활기찬 움직임 속에서 씩씩하고 호탕한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가면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가곡(2010. 11. 16)

시조를 관현악에 맞춰 부르는 전통음악

가곡은 시조(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우리나라 전통음악으로, '삭대엽(數大葉)' 또는 '노래'라고도 한다. 현재 전승되고 있는 가곡은 우조, 계면조를 포함하여 남창 26곡, 여창 15곡 등 모두 41곡이지만, 이 가운데 여창은 남창가곡을 여자가 부를 수 있도록 조금 변형시킨 것으로 남창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여창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는 선율과 높은 음역의 속성(가성)을 내는 점이 다르다.

매사냥(2010. 11. 16)

훈련한 매로 하는 사냥… 4천년 이상 이어와

매사냥은 매를 훈련하여 야생 상태에 있는 먹이를 잡는 방식으로 4천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에서 발원하여 무역과 문화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 매사냥은 식량 확보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자연과의 융화를 추구하는 야외활동으로 자리매김했으며 60개 이상 국가에서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함께 아랍에미리트(UAE), 벨기에, 체코, 프랑스, 모로코, 카타르,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몽골 등 11개국이 참여해 공동등재를 신청해 통과됐다.

대목장(2010. 11. 16)

궁궐·사찰 건축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장인

대한민국에서는 나무를 다루는 사람을 전통적으로 목장, 목공, 목수라 불렀다. 기록상으로 보면 목장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이 목장 가운데 궁궐이나 사찰 또는 가옥을 짓고 건축과 관계된 일을 대목(大木)이라 불렀고, 그 일을 하는 장인을 대목장(大木匠)이라 불렀다. 설계, 시공, 감리 등 나무를 재료로 하여 집을 짓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장인으로, 오늘날 건축가를 일컫는 전통적 명칭이 대목장이다.

줄타기

줄타기(2011. 11. 29)

줄을 타며 구경꾼과 노래·재담 나누는 놀이

줄타기는 공중에 맨 줄 위에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발림을 섞어가며 갖가지 재주를 부리는 놀이이다. 줄 위를 마치 얼음 지치듯 미끄러지며 나가는 재주라고 하여 '어름' 또는 '줄얼음타기'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줄타기는 외국의 줄타기와 달리 줄만 타는 몸 기술에 머무르지 않고, 노래와 재담을 곁들여, 줄 타는 사람과 구경꾼이 함께 어우러진 놀이판을 이끄는 특징이 있다.

택견(2011. 11. 29)

몸을 탄력있게 움직여 공방 이루는 전통무술

택견은 우리나라 전통무술의 하나로, 유연한 동작으로 손과 발을 순간적으로 우쭐거려 생기는 탄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자기 몸을 방어하는 무술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택견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삼국시대부터 이미 택견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무인들 사이에서 성행하는 무예로 발전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대중화되어 무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행하게 되었다.

택견은 언제나 우리 산하의 모습처럼 부드럽게 춤을 추듯 굼실대다 순간 몸을 놀려 탄력 있게 공방을 이루어낸다. 처마 끝 풍경을 울리고 달아나는 바람처럼 여유 있게 우쭐대며 가볍게 상대를 제압한다. 또한 공방의 어느 한 가지에만 치우치지 않고, 단순한 자세로 멈추어 있지도 않는다. 경쟁자를 쓰러뜨리는 무술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무술이며 정신 수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격투기와는 다르다.

한산모시짜기(2011. 11. 29)

충남 서천지역에서 행해진 고품질 모시 짜기

한산모시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만드는 모시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모시의 대명사로 불린다. 모시는 모시풀 껍질 벗긴 것을 재료로 하여 만든다. 한산 지역에서 모시짜기가 성행한 이유는 이 지역이 모시풀의 생장조건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모시는 여름철에 기온이 높고(평균 섭씨 20~24도) 연평균 강수량이 1천밀리미터 이상이면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잘 자라는 속성이 있는데, 서해안을 끼고 있는 한산 지역 일대가 이런 조건의 최적지이다. 제작과정은 크게 재배와 수확, 태모시 만들기, 모시째기, 모시삼기, 모시굿 만들기, 모시날기, 모시매기, 모시짜기, 모시표백 순으로 이루어진다. G

글·하주희 기자

택견 / 한산모시짜기

기 획 특 집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미움과 증오가 없는 사회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를 선정했다.
건강한 사회란 '잘못된 사회적 습관'을 없애 각종 사회병리 문제가 해소된 사회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살 · 인공임신중절, 청소년들의 가출 · 폭력 · 따돌림, 도박 · 마약 · 인터넷 중독과 약물 오 · 남용, 잘못된 교통질서, 무분별한 고소, 관혼상제의 허례허식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1년간 정부 각 부처와 민간단체들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져온 길을 되짚어 본다.

일러스트 · 이철원

건강한 선진 사회를 위해 우리 사회 각종 병리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년 동안 12대 과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다. 지난 12월 1일 광화문 거리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들이 '성폭력, 학교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훨씬 건강해졌다

국무총리실 선정 12대 과제 성과 보고 대회… 반성과 발전방안 제시

정부는 지난 1년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회 병리해소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자살, 학교폭력, 인터넷·도박 중독 등 12대 과제를 선정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국무총리실은 12월 12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건강한 사회 추진 성과 보고 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국무총리실은 '건강한 사회 추진 성과 보고 대회'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가운데, 4개 주요 과제를 뽑아 발표했다. 과제별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 지속적 관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 주요 4대 과제는 자살 예방,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다.

'건강한 사회 만들기'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단체 우수사례도 발표했다. 또 12대 과제별로 전문가 1명씩 모두 12명의 전문가들이 현장 경험 등을 토대로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 및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주요 4대 과제를 포함해 12대 과제 전체의 성과, 향후 발전 방안 등을 담은 성과자료집을 제작·배포했다. 성과자료집을 근거로 4대 주요과제 성과에 대해 알아보자.

자살예방 ·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가시화

정부는 '세계 1위 자살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올 3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을 시행했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센터'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자살예방협회는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두어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력 교육·훈련을 비롯,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정신건강 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들어온 자살 시도자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내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2퍼센트 줄었고 2011년에도 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도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2007년 3.1명 수준에서 2011년 2.4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3명에서 2011년 OECD 평균인 1.4명보다적은 1.3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다.

검소한 혼례문화 여건 조성 성공적

정부는 매년 6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범국민 캠페인 활동을 연중 펼쳐왔다. 그 결과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참여 기관수는 2010년 55개에서 2012년 78개로 증가했으며, 참여 인원도 2010년 1만4천여 명에서 2012년 5만3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2009년 개발한 '인터넷 윤리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개개인이 인터넷 윤리의식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드림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결과,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해킹·바이러스 범죄 제외)는 2009년 14만7천9백35건에서 2010년 10만4천6백15건으로 줄었으며 2011년에는 10만3천5백6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음란물 건수 또한 2012년 4월 시간당 70~80건에서 2012년 7월 시간당 20~50건으로 감소했으며, 미등록 웹하드업체도 2012년 5월 76개에서 2012년 11월 19개로 줄었다.

정부는 '검소한 혼례문화 국민인식 개선'을 펼치고 있다. 언론사와 공동으로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백쌍' 캠페인, '1천명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을 추진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체 보유 강당 등을 혼인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또 정부가 구축한 혼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eddinginc.org)는 혼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혼인 예식장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G

글·김남성 기자

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성과

구분	실천과제	추진성과
생명 가족 존중	자살 예방 대책 추진	•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기반 수립 • 지자체의 자살예방사업 확산으로 자살자 수 감소
	인공임신중절 예방·개선·보완 대책 추진	• 불필요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상담 및 신고체계 마련, 의료기관 자정활동 유도 등으로 국내 인공임신중절 유의미하게 감소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 '뿌리 찾기'에 대한 체계적, 표준화된 지원 • 입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기여 • 입양가정에 대한 단계적 경제 지원
	가출·위기 청소년 줄이기	• 청소년 복지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인터넷 중독 개선 효과, 가출청소년의 비행 및 청소년의 탈선 감소, 가정 복귀 및 사회 적응 완화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2퍼센트 감소 • 인구 10만명당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 1.3명
신뢰 있는 사회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 유도 •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시스템 구축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 국민들의 법의식 함양 • 국민의 법률복지 서비스 향상 • 민·형사 사건 준별하는 제도 실시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 국민의 인터넷 윤리 의식 향상 • 사이버 범죄 및 음란물 게시 감소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정책 사안에 사회지도층 솔선수범 • '언론,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한 사회 전반적인 리더십 발휘 및 공감 계기 조성 • 결혼당사자 중심의 혼례여건 조성
중독 없는 사회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도박중독 예방교육 활성화 및 도박중독 치유·재활 체계 구축 • 도박중독 상담·치유 서비스 전국 확대 • 도박중독 분야 연구 활성화 및 정보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참여 기관수 2010년 55개에서 2012년 78개로 증가, 참여 인원 2010년 1만4천여 명에서 2012년 5만3천여 명으로 크게 증가 •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마약퇴치 약물 오·남용 줄이기	• 마약류 사범이 1만명 선 이하로 점차 안정적인 감소추세. • 전국 시·도에 마약중독자 치료 기관 19개로 증가 • 각종 매체에 마약 폐해 홍보 강화

"자살위험군 미리 발견할 시스템 만들자"

'자살예방법' 3월 시행… 24시간 긴급상담전화·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 한때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만명당 사망률이 30명을 넘어서면서 OECD 최다 사망률 국가로 기록됐지만, 매년 정부가 4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자살예방 관리 시스템을 개발, 운영할 때"라고 지적한다.

일러스트·우현웅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삶을 마감한 사람은 모두 1만 5천9백6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3백40명(2.2퍼센트)이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4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률은 31.7명으로 전년 대비 1.7퍼센트 증가했다.

자살 사망자는 연도별로 등락은 다소 있으나,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1년에는 2001년에 비해 1백19.9퍼센트(17.3명)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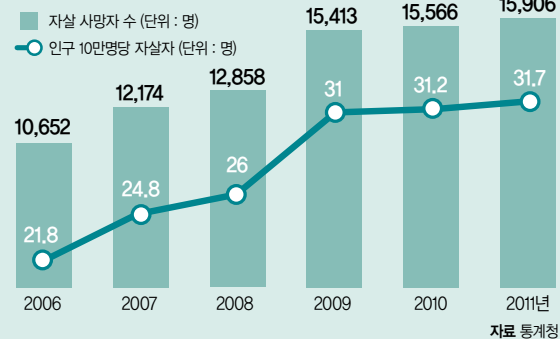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92년 우리나라의 10만명당 자살 사망자는 8.3명으로 사망 원인 중 10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0년에는 13.6명으로 8위에 올라섰고, 2010년에는 전체 사망 원인의 4위를 기록했다.

자살예방 위한 조기 개입체계 구축키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원인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과 김현정 전문의(한국자살협회 대외협력 부회장)는 "자살은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국민의 삶의 목표는 가치가 '성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사회가 되다 보니까 경쟁에서 이긴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낙오자 혹은 실패자라는 생각과 극심한 스트레스, 우울증 등 정신장애에 시달립니다.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모르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나 시스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부닥치면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세계 1위 자살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이 대표적이다.

자살예방법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자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 실태조사, 24시간 긴급상담전화 운영, 자살예방·상담·심리치료 등 자살 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또 지난 6월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개입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에 들어온 자살 시도자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내 정신과에서 치료받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퇴원 후에는 지역 내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사후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각 광역 자치단체에서 9개의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중앙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자살예방과 관련된 인력 교육·훈련을 비롯,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처럼 꾸준한 계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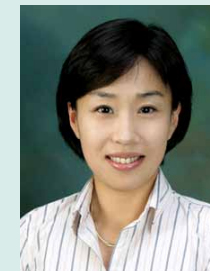
서울자살예방센터 이명수 센터장은 "정부는 특히 병원이나 복지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게이트 키퍼(Gate Keeper) 교육을 확대하여 자살 위험군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살 도구나 수단에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자살 수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모방 자살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론은 자살관련 보도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현정 정신과 전문의는 "정부의 꾸준한 계도로 지난 10여 년간 교통사고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듯이 자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며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통의 문제로 인식하여 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사회단체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G

글·이상훈 기자

이유진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장

"자살 위험도에 따라 계층별 예방사업 펼쳐야"

인천광역시 자살예방센터는 지난 9월 18일 인천 자살 시도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7곳의 응급의료기관과 '자살 시도자 응급의료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자살 시도자가 각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하면 인천 자살예방센터나 각 구청의 정신보건센터에 통지되어 자살 고위험군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유진 인천시 자살예방센터장은 가장 자살률이 높은 사람은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초고도 위험군"이라며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자살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면 자살 고위험군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급증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확한 연구는 진행된 적이 없지만 다같이 못살던 시대에는 자살률이 낮은 것에 비추어볼 때 2000년대 들어 사회적 양극화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자살률도 높아진 것 같다. 또한 높아진 자살률 자체가 또 다른 자살을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고도 볼 수 있다.

우울증과 자살의 연관관계와 자살의 사전 징후를 알 수 있는가.

1990년대 핀란드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90퍼센트는 진단 가능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고, 질환의 80퍼센트가 우울증으로 나타났다. 자살 예정자들의 평소와 다른 어떤 변화도 모두 자살 신호가 될 수 있다. 몇 달 전부터 잠을 잘 못 잔다든가, 말이 없어진다거나, 유서를 쓰는 등의 행동을 하면 자살에 대한 위험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심리적인 변화가 있으면 말이나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주변에서 이를 잘 감지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자살 위험자들이 보내는 이상 징후를 알았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우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무엇이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공부를 못하고, 집안일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우울증을 보이거나, 초조·불안증을 나타낼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조언하거나 도와주어야 한다. 같이 병원에 가주는 것도 도와주는 한 방법이다.

현재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국가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 ▲고위험군 대상 ▲초고도 위험군(자살을 한 번 이상 시도했던 사람) 대상 등 계층별로 각기 다른 자살예방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효과가 크다. 자살로 연간 4조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한다.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좀 더 많은 예산이 배분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OECD 수준 감소

도로시설 개선·안전교육 강화 등 정책적 지원 지속 방침

OECD 31개 국가 중 28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연간 11.3명….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률 통계 수치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성적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5년간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시행,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지난 5년간 국내 교통사고 통계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살펴봤다.

서울 재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엄마손 들고 안전하게 길 건너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대책 실시 이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평균(인구 10만명당 사망자 1.4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OECD 평균의 두 배가 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GDP(국내총생산)의 1퍼센트, 국가예산의 6퍼센트를 넘는 교통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0년까지 교통사고로 매년 5천명 이상의 사망자와 35만명 이상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교통사고 관련 통계 수치는 대외적으로 국가 이미지 하락과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 내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여 공동체로서 국가 구성원들의 결속을 약화시키고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특징은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자 사고가 선진국과 비교해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가 4.4명으로 OECD 평균 1.4명(2009년)보다 3.1배가량 높았다.

2008년부터 연도별 목표치 정해 모니터링

인구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고령 운전자 및 고령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도 특징 중 하나다.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35.2명(2009년)으로 OECD 평균인 11.4명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으며 노인 사망자의 50퍼센트 이상이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고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5개년 계획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 7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교통사고 줄이기 5개년 종합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존의 제도 및 법령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획기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교통안전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하기로

우선 연도별 감소율 목표치를 설정했다. 2008년은 5~10퍼센트 정도의 감소치를 설정하고 제도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2009년은 10퍼센트 감소를 목표로 홍보·캠페인 등 의식 제고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2010년과 2011년은 각각 15퍼센트 감소치를 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도로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과 더불어 교통안전강화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종합시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매년 중점추진대책 경과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왔다. 그 결과 당초 목표치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5.2퍼센트 줄었고 2011년에도 5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도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지만 2007년 3.1명 수준에서 2011년 2.4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고 통행량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의 감소는 자동차의 안전도 향상, 도로 인프라 증대, 안전띠 착용률 향상 등 범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13세 미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3명에서 2011년 OECD 평균인 1.4명보다 적은 1.3명으로 대폭 감소하며 선진국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시설개선 확대 등 안전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교육홍보 강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 (단위 : 명)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망자(감소율)	6,166 (기준연도)	5,870 (–4.8%)	5,838 (–0.5%)	5,505 (–5.7%)	5,229 (–5.0%)
	5년간 937명(–15.2%) 감소				
자동차 1만대당	3.1	2.9	2.8	2.6	2.4
인구 10만명당	12.7	12.1	12.0	11.3	10.7

자료 경찰청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교통사고율 감소 속도가 빠른 편이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최대였던 지난 1990년대 초반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기까지 약 13년이 걸렸는데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굉장히 빠른 편이다. 다만 최근 감소율이 예전에 비해 둔화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더 적극적인 교통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 효율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교통안전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교통범칙금 등을 활용한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교통안전사업의 안정적 투자는 물론 기존의 시설개선 중심의 투자에서 이용자 형태 개선, 안전문화 정책, 안전교육 등 효과가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맞춤형 대책 필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고령 인구의 증가 등 새로운 교통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IT기기 보급에 따른 사고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적인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와 함께 반사 지팡이 등 고령자 교통사고 주요 유형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의 보급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질서의식이 중요하다고 보고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법과 제도 개선에서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추가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

글·김대현 기자

일러스트 · 신용호

인터넷 오염 차단… "아이들을 보호하자"

국민운동과 함께 윤리교육 · 불법추방 제도 마련 등 '3박자' 추진

올해 스마트폰 사용자는 3천만명에 이른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와이브로 가입자는 1백만5천3백99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터넷 혁신 이면에는 적잖은 부작용이 있다. 악성댓글, 신상털기, 안티카페 등 사이버 권리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불법 유해정보가 난무하는 등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라는 기치 아래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스마트폰의 보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 등 인터넷 이용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은 생활이 되다시피 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독립·산발적으로 전개돼온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 운동을 민관공동의 범국민 캠페인으로 확대, 정부기관·언론사·시민단체·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범국민협의회'(의장 이어령 교수)를 발족했다.

정부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를 범정부 차원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실천과제'로 선정해 추진 동력을 높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범국민 인식제고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주간행사를 연계했다. 정부의 활동은 크게 ▲범국민 캠페인 ▲세미나와 컨퍼런스 활동 ▲인터넷 윤리 콘텐츠 개발 ▲광고·홍보, 인터넷 윤리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에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정부는 매년 6월 개최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양한 범국민 캠페인을 연중 펼쳐왔다. 또 인터넷 윤리학회, 인터넷 전문가 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 연계해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 및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특히 2012년에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노르웨이,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 인터넷 윤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 중심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유아·대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각각 대상에 맞춘 인터넷 윤리교육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윤리교육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및 교원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불법 음란물 유통 등 차단벽 높여

인터넷 윤리교육은 의식과 습관이 굳어지기 이전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며, 또한 그 시기에 효과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청소년의 건강한 사이버 인성함양을 위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오던 인터넷 윤리교육을 확대해 ▲청소년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 정립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실 ▲인터넷 윤리 순회강연 ▲인터넷 윤리 체험교육을 위한 부산·광주 상설 윤리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 인터넷 윤리교육 및 참여활동을 통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한국인터넷드림단'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드림단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터넷 지킴이, 기자단 활동, 멘토링, 인터넷 윤리 캠프, IT기관 탐방 등 다양한 자기개발 및 사회활동에 참가해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2010년 8백31명이던 드림단 참여 인원수는 2012년 5천3백3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인터넷 불법 콘텐츠의 유통 거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웹하드 사업자의 사업허가 형태를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2011년 5월 개정 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소년 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공표할 수 있도록(청소년보호법 2011년 9월 개정)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업자(주요 포털)와 자율심의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음란물 등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정 심의 이전에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통해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정역할을 확대하고, 신속하게 차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올 2월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정보 총 1만2천3백97건이 3일 이내에 조치되는 높은 성과를 거뒀다.

조선DB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어렸을 때부터 정착시키기 위해 학교에서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노력한 결과, 2009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던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박 높이자 미등록 웹하드 19개로 급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조사한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해킹·바이러스 범죄 제외)는 2007년 7만1천1백79건에서 2009년 14만7천9백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10년 10만4천6백15건으로 줄었으며 2011년에는 10만3천5백65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09~2011년 실시한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가 쉽게 생성·확산된다는 인식은 2009년 65.6퍼센트에 비해 2011년에 62.4퍼센트로 3.2퍼센트포인트 감소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의 유출 우려도 같은 기간 65.3퍼센트에서 64.0퍼센트로 1.3퍼센트포인트 감소했다.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웹하드에 업로드되는 음란물 건수 또한 2012년 4월 시간당 70~80건에서 2012년 7월 시간당 20~50건으로 감소했으며, 미등록 웹하드업체도 2012년 5월 76개에서 2012년 11월 19개로 줄었다. G

글 · 이범진 기자

조선DB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난 2012년 9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에서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에 참여한 예비부부의 결혼식 주례를 서고 있다.

분에 넘치는 결혼식 이제 그만

민간과 협력해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혼례모형 개발

한국에서 결혼은 두 사람만의 혼례가 아니다. 보통 집안 간의 결혼이라고 한다. 집안이 주가 되다 보니 서로 눈치 보기에 바쁘고 체면을 따진다. 당연히 결혼식도 소모적이고 낭비적으로 흘러가 집안과 결혼 당사자 모두 경제적,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필요 이상의 부담과 위화감을 주고 있다.

최근 호화 혼례, 고비용 혼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1퍼센트가 관혼상제 가운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혼례를 꼽았다.

사회 분위기에 따라 너도나도 분에 넘치는 결혼식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호화 결혼식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1급 호텔의 예식 수입은 전체 매출의 20~30퍼센트, 특2급 호텔은 절반에서 3분의 2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초호화 호텔 결혼식을 할 때 총 예식비용이 7천만~1억4천만원, 꽃값은 기본 1천만원, 야외 예식은 9천만원에 달한다.

이런 호화 혼례, 고비용 혼례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혼인에 따른 갈등과 혼례 비용이 계속 증가하여 결혼 적령기 젊은이들이 혼인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과도한 혼수문제, 호화로운 호텔 결혼식 등 체면·과시주의 혼례관행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혼인의 빈부 격차 심화와 부모의 경제적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셋째, 혼례 절차 및 문화의 변질과 의미 있는 혼례예식의 정체성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러한 호화 혼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리실 주도로 지난해 3월부터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민·관이 협력하여 허례허식 혼례를 지양하고, 실속 있는 생활공감형 혼례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검소한 혼례문화 국민인식 개선'을 펼치고 있다.

2011년 7월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단체, 학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협의회'를 발족했다. 10월에는 생활개혁실천협의회 등 관련 단체·기관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혼례문화 확산을 위한 1백인 선언식'을 개최했다.

공공시설 예식장으로 개방 등 추진

정부는 또 언론사와 공동으로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백쌍' 캠페인도 추진했다. 최소한 자기 스스로 마련한 혼례 비용으로 하객 1백50~3백명 정도를 초청하여, 1천만원 내외로 혼례를 하고자 하는 예비부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9월 16일 김황식 국무총리가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홀에서 '참 혼인식'에 참가한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주례를 진행하기도 했다.

'참 혼인식' 지원을 위해 청와대 사랑채, 국립중앙도서관, 고용노동부 남부지청, 도로교통공단, 북한산투데이스, 서울법원 종합청사, 한국거래소, 한국감정원 등의 시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여 일반 예비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혼인 예식장을 이용하도록 지원했다.

올해 8월부터는 언론사와 공동기획으로 '1천명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 캠페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이례적으로 참여했고, 중앙부처 장·차관, 16개 시·도 단체장, 청와대 수석급 이상이 모두 참여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구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정부가 구축한 혼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시설 혼인 예식장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호화 혼례 문제점 사회적 공감 확산

정부의 지난 1년간 노력으로 '언론, 시민단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사회 전체가 호화 혼례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주요 언론과 공동기획으로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단체 등 각계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범국민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확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검소한 혼례 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결혼당사자 중심의 혼례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내 힘으로 하는 참 혼인식 1백쌍' 캠페인을 통해 결혼 당사자 중심의 혼인식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혼례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일반 예식 대비 비용 절감이 큰 '알뜰 혼례모형'을 개발하고, 자연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친환경 혼례모형'을 개발·활용했다.

또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전국 1백75개 공공시설 예식장을 개방, 검소한 혼례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예식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운영 매뉴얼도 마련해놓았다.

정부는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미비점을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혼례모형 개발·보급, 지역 특성에 맞는 혼례문화 정착, 국민 인식개선 활동 지속 추진, 예식장 운영 모니터링 등 시민활동을 강화하고 예비부부 혼인에 필요한 주거지원 등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G

정부와 시민단체가 펼치는 다양한 혼례개선 사업

단체명	사업명	사업내용	연락처
한국 YWCA 연합회	결혼식 말고 결혼해요	• 청년여성과 부모대상 교육 •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 • 알뜰 결혼 수기 공모	☎02-774-9702
청년여성 문화원	바람직한 혼례모형 대국민 보급 사업	• 바람직한 혼례모형 홍보단 양성 교육 • 바람직한 혼례모형 시연 • 신랑각시 혼인교실, 부모교실 • 바람직한 혼례모형 보급	☎02-796-6644
한국여성 유권자 연맹	건전 혼례문화 "행복하게 장가들고! 시집가자!!"	• 전국 네트워크 교육 및 토론회 • 전국전통혼례지도 제작 • 다문화가정을 위한 전통혼례 홍보 및 체험활동	☎02-423-5355
소비자 시민모임 안산지부	검소한 혼례 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운동	•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실천단 결의대회 • 결혼예식 비용 감시 활동 •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교육, 홍보 및 캠페인	☎031-484-3788
그린 웨딩포럼	과비용 예식문화 개선을 위한 '생활공감 saving 웨딩'	• 다양한 혼례모형 개발·보급 • 예비부부 생활공감 웨딩 ※ 공공기관시설 일반시민에게 예식장으로 제공, 경제적 소외계층 예식 지원	☎1577-8470
무료 결혼식 추진운동 본부	건전 혼례문화 확산사업	• 공공시설 무료 혼례장소 안내 •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 및 결혼모델 제시	☎02-543-7075
한국 전례원	건전 혼례문화 확산	• 건전 혼례문화 정책 교육 • 언어예절 교육홍보	☎02-2269-3474
효나라운 동중앙회	건전 혼례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사업	• 건전 혼례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인식 개선	☎02-769-1132

글·김남성 기자

혼례종합정보 http://weddinginc.org

"꿈이 미래다"… 가출·학업중단은 막아라

학업복귀·사회진출 기회 갖도록 전국에 청소년쉼터 등 안전망 마련

최근 가정해체가 증가하면서 가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국 청소년 위기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청소년의 약 17퍼센트인 87만명이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위기 청소년 발생을 예방하고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학업복귀와 사회진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안전망 마련에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인 안모(18·경기도 의정부시) 양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세상 위 오빠는 알콜 중독자인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가출했다. 안 양 아버지는 주취폭력으로 이미 여러 번 구속된 경력이 있다. 상습적으로 안양에게 손찌검을 해오던 아버지가 지난 1월에는 "집을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까지 했다. 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도 안 양은 곧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에 입소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언제 학교에 찾아와 안 양에게 행패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내년까지 청소년쉼터 1백3개소로 늘려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의 청소년상담사들은 안 양의 학교에 상황을 설명하고 보호를 당부했다. 지역사회와도 연대해 안 양의 심신을 치료하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병원 치료를 의뢰했다.

조선DB

우리에게도 이루고 싶은 예쁜 꿈들이 있어요! 지난 2010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통한옥 수련원에서 성매매 전력이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상상력 깨우기 아카데미' 행사가 열렸다.

주변의 관심과 노력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게 된 안 양은 대기업에 취직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됐다. 그리고 지난 7월, 안 양은 한 대기업에 취직했다. 9월부터는 쉼터에서 퇴소하여 독립해 살고 있다. 안 양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 청소년 쉼터의 날' 주간 기념식에서 한국청소년쉼터 협의회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안 양의 이야기는 12월 12일 열리는 국무총리실 주최의 '건강한 사회 추진성과 보고대회'에도 소개된다.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의 박민정(33) 간사는 "안 양이 처음 우리 쉼터에 왔을 때에는 자포자기 상태였으나 아버지의 폭력을 차단하고, 쉼터에서 생활이 안정되니 자신의 꿈도 찾게 됐다"고 전했다.

현재 이곳 쉼터에서 5년째 근무 중인 박 간사는 "청소년들의 가출 원인으로는 가정문제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가정폭력, 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많다"면서 "나날이 가정해체가 증가해 가정으로 돌아갈래야 갈 수 없는 친구들이 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안 양은 현재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10명의 입소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있는 쉼터 92개소 중 하나. 지난 9월 기준으로 전국 쉼터에는 가출 청소년들 1만6천2백69명이 생활하고 있다.

일반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2002년 8.5퍼센트에서 2010년 13.7퍼센트로 증가하는 추세다. 학업중단 청소년도 ▲2007년 7만7백96명 ▲2009년 7만1천7백69명 ▲2011년 7만6천5백8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가출 청소년 보호대책'과 2009년 '위기 청소년 보호·관리 추진실태 개선방안' 등 대책을 수립했던 정부는 최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더욱 힘쓰고 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한 최근 정부 지원은 크게 ▲위기 발생 예방과 초기단계의 대응 ▲위기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대라는 두 방향으로 모아져왔다.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을 돕고, 가출·위기 청소년의 학업복귀와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1년 10월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하위법령을 전부 개정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을 체계화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복지지원 인프라가 확대됐다. 올해 청소년쉼터 9개소를 확충한 여성가족부는 2013년에는 청소년쉼터를 1백3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일시쉼터의 야간보호기능을 확대하여 7일까지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유해약물 무상제공 및 대리구매 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추가,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화 등 유해약물과 유해업소에 대한 접근 제한을 강화했다.

유해약물·유해업소 접근 제한도 강화

한편, 적극적인 위기 예방과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위해 '학업중단숙려제'와 정서행동발달특성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보이거나, 자퇴서를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숙려기간을 두어 전문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 2011년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상담복지센터가 시범 운영한 결과 상담학생의 17.8퍼센트가 자퇴의사를 철회하여 그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또 야간 취약 시간대에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범죄, 또는 유해환경으로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찾아가는 거리상담 지원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여자청소년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십대지기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의정부시 행복로 일대 등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거리 이동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제2, 제3의 안 양을 찾아내 희망을 들려주기 위해서다. G

글·박경아 기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쉼터 시설관련 현황 2012년 9월말 기준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월
상담복지센터	시설수	68개소	81개소	97개소	166개소	186개소	190개소
	수혜 청소년수	56,899명	79,933명	98,020명	128,426명	145,376명	107,159명
쉼터	시설수	72개소	76개소	81개소	83개소	83개소	92개소
	이용 인원	14,360명	15,133명	16,519명	16,687명	23,427명	16,269명

자료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지원 안내

- 위기 청소년 상담전화(☎1388) 문자(#1388)
- 사이버 상담센터인터넷(Cyber1388.kr)
- 앱(1388App.)
- 청소년 자활지원 두드림존 www.dodream.or.kr ☎02-2250-3000
- 청소년e랑 www.facebook.com/ewithyouth
- 청소년 특별회의 www.facebook.com/withyouth

법무부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도입한 법률홈닥터 금윤화 변호사가 12월 6일 서울 강서구청 화곡별관에서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고소·고발 스톱!… 법률상담부터 받으세요

전국 20개 지자체 등에 법률홈닥터 배치… 취약계층에 맞춤형 법률지원

우리 사회에 팽배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은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고, 행정력 낭비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신 풍조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 형성을 방해하여 대한민국이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가 법률홈닥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강서구청 화곡별관 5층 희망드림센터의 희망복지팀에는 특별한 '닥터'가 있다. '법률홈닥터' 금윤화(30) 변호사다. 금 변호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이곳에 상주하며 그동안 높은 문턱으로 인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에게 법률구조 알선, 법률상담,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가능한 맞춤형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금 변호사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개념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도입한 법률홈닥터 제도가 처음 선발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 20명 중 한 명이다. 법무부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법률홈닥터 제도를 출범시켰다.

기존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분쟁이 있고 난 후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소송을 처리하는 반면, 법률홈닥터는 분쟁위기를 사전에 발굴해 위기를 예방하고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

"취약계층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이 명의를 빌려줘 입은 손해, 가족관계부가 정리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 극한상황까지 몰려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로스쿨 1기인 금 변호사는 공익인권 변호사를 꿈꾸며 법률홈닥터에 지원했다고 한다. 금 변호사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실시한 법률상담은 총 4백60건. 이 밖에도 법 교육(6건), 구조알선(23건), 법률문서 작성(8건), 종합복지 지원 회의 참석(27) 등의 활동을 해왔다.

분쟁위기 사안 사전에 발굴해 법률 서비스

금 변호사는 "법률상담 4백60건 중 10퍼센트가량이 이미 경찰서를 다녀왔거나 갈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고발 가능성이 높은 사안들"이라고 전했다.

금 변호사의 경험을 적용한다면 전국의 법률홈닥터들이 5~10월 실시한 법률상담 7천8백93건 중 10퍼센트가량이 고소·고발로 발전될 사안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 고소사건은 전체 사건의 22퍼센트 안팎으로 일본에 비해 50배 이상 높다. 또 인구 10만명당 피고소 인원도 일본의 약 1백70배에 달한다. 반면 최근 5년간 고소사건의 기소율은 18퍼센트 정도로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한마디로 앞뒤 안 가리고 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소가 남발하는 원인에 대해 비합리적 거래관행이 남아 있고 ▲민사소송은 시간·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실효성이 떨어지며 ▲재산 범죄와 민사 채무 불이행을 구별하지 못해 국가, 특히 수사기관에 그 피해 구제를 호소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 변호사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법의 도움이라고 하면 우선 경찰의 도움밖에 생각하지 못해 사소한 일로도 경찰서를 찾게 된다"고 전했다.

금 변호사가 담당하는 강서구는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5천2백75가구, 임대형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만6백99가구 등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법률 서비스를 비롯해 종합적인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법률상담 사례들도 영구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 한 예로, 아버지와 단 둘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던 19세 청년은 아버지가 사망하며 영구임대아파트 승계권을 아들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을 청년의 고모에게 말로만 남기는 바람에 승계권이 인정되지 않아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전국의 법률홈닥터

지자체·단체	전화번호	지자체·단체	전화번호
서울 강서구청	02-2600-6530	대구시	053-666-2667
서울 광진구청	02-450-7843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02-771-3466
서울 노원구청	02-2116-3505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032-437-7432
서울 도봉구청	02-2289-1115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070-7878-9365
서울 마포구청	02-3153-8529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042-226-3711
서울 송파구청	02-2147-2710	전북사회복지협의회	063-251-1860
서울 양천구청	02-2620-3352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062-351-2114
서울 종로구청	02-2148-1384	울산시사회복지협의회	052-229-6626
경기 남양주시	031-590-8721	강원사회복지협의회	070-8766-9496
경기 광명시	02-2680-6350	경남사회복지협의회	070-4035-0068

금 변호사는 청년의 딱한 사정을 상담받고 청년의 친척들 가운데 최연장자(당연 법적후견인)를 찾아 사망한 아버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청년이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때로는 법률홈닥터의 존재 자체가 '해결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한 달 전쯤 반지하 셋방에 사는 지체장애 6급의 남성(58)과 9세 아들 단 둘이 사는 한부모가정이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위기가정'으로 발굴되어 강서구청에서 종합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한다. 이 부자는 온수가 안 나와서 추운 겨울에 세수도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집주인이 고장난 곳을 고쳐주지 않고 있었다.

때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해결사' 역할도

"현장을 찾아가 그저 '법무부가 파견한 구청 변호사입니다' 하니 '원래 고쳐주려던 건데' 하며 얼른 고쳐주더군요."

금 변호사는 "로스쿨에서 대법원 판례들을 어렵게 공부한 건 활용 못하지만, 어려운 이들의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고, 때로는 그분들의 인생까지 달라지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 지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분들에게 전 유일한 변호사였어요. 중앙부처 소속 변호사라는 것 자체에 신뢰를 보내는 모습을 볼 때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20명의 법률홈닥터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서로의 현장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이면 취약지역을 찾아 무료 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홈닥터는 현장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고소·고발로의 확산을 예방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격려하는 따뜻한 행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G

글·박경아 기자

지난 11월 20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열린 '힘들지,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과 자살에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학교폭력의 근본적 대안은 인성교육"

학교와 가정, 사회 유관기관 사이 실질적 공조 시스템 가동해야

지난 2월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성과로는 무엇보다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학생은 보호하는 풍토가 교육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학교와 가정, 사회 유관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05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연이은 학교폭력 사례와 학생들의 자살 문제로 온 나라가 다시 학교폭력 문제로 시끄러웠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시행해왔던 대책들이 학교폭력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특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인 학생들의 배려·공감·협동심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대한 방안이 미흡하여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올해 2월 6일 정부가 관계 장관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목표하에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대책이며 긴 안목에서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었고, 무엇보다 교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피해 학생을 끝까지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엄정 조치한다는 점, 학교 및 학부모의 책임도 의무화했을 뿐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인 인성교육 강화 방안들도 제시되었다.

이제 2개월 정도 지나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추진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성과를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2012. 2 .6) 이후 학교폭력 사안 대응을 위해 법·제도·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과제들을 현장에서 적합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행 후 가장 큰 성과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예로서 학교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 피해 경험률에 있어서도 2월에 실시한 1차 조사에서는 12.3퍼센트였으나 8~9월에 실시한 2차 실태조사에서 8.5퍼센트로 나타나 피해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교폭력 개념 및 신고 방법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학생의 91.5퍼센트가 긍정적(그렇다, 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초등학생은 97퍼센트로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응답학생의 94.4퍼센트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당초 피해 또는 목격 후 알리지 않거나 모른 척한 학생들 가운데 약 90퍼센트가 앞으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였다.

학교현장의 참여와 목소리 담는 노력 필요

또한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피해 학생 보호 대책 강화 등과 관련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등 전문상담인력이 확충되어 학생들의 학교폭력 고민 상담 기회가 확대되었다. 이 밖에도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의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가정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확대하는 등 현장에 적용해 거둔 성과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아직도 현장에서는 몇몇 주요 대책들에 대한 실효성 문제와 의견 갈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가 스스로 학교폭력 근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대안은 예방이며 예방은 인성교육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존엄성과 대인관계 대처 방안·학습 등과 같은 감성교육 프로그램, 대인관계 대처 능력 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지난 11월 26일 서울 양천구 양정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폭력 없는 사랑의 학교 만들기 다짐의 날 행사에서 성지 고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주제로 모의재판을 하고 있다.

둘째, 향후 1년에 두 번 실시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가 학교폭력 대책 개선 및 수립 자료로뿐 아니라 단위학교 차원에서도 학교폭력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장의 참여와 목소리를 외면한 채 시행되는 대책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 발생의 감소와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대책이 시행되고 난 후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대책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높은 대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책들을 추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뿐 아니라 가정, 사회의 유관기관 간에 공조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학교폭력 근절은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없앨 수 있다는 강한 의지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추진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학교가 아무리 예방·근절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가정에서 학부모들의 협조와 지원이 안 되고 학교 밖 환경 또한 열악하고 유해하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 학교, 사회 유관기관이 연계하여 추진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글·박효정(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소장)

김승완 기자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왼쪽)과 봉선사 혜문 스님은 일본에 빼앗긴 조선왕실의궤를 환수하는 데 앞장선 공로로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목련장을 받았다.

"반출 문화재가 제자리 찾은 선례 남겨"

조선왕실의궤 환수 공로로 국민훈장받은 정념·혜문 스님

지난 2005년 겨울 오대산 기슭의 월정사. 사찰 암자 한켠에 마주앉은 두 승려는 따뜻한 찻잔을 앞에 두고 비장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일본 왕실을 상대로 한 소송전을 논의하던 터였다. 이날 만남의 주인공은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봉선사 혜문 스님이었다. 6년 뒤 이들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왕실의궤가 우리 손에 돌아오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지난 2005년부터 만 6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일본에 빼앗긴 보물, 즉 조선왕실의궤를 환수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지속됐다.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유네스코는 물론이고 50여차례 이상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 정치권 및 당국자를 설득하며 고군분투했다. 결국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 조선왕실의궤 1천2백5책이 우리 손에 돌아오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이 주도해 시작한 조선왕실의궤 반환운동은 출발 당시 우려 섞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불가능한 일을 벌여 한·일 간 불편함만 초래한다"는 식의 부정적 편견이 상당했다. 그러나 빼앗긴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겠다고 나선 불교 및 민간단체의 노력은 '불가능을 가능한 것'으로 바꿔놓았다.

지난 12월 3일 외교통상부는 의궤 반환에 기여한 공로로 정념 스님과 혜문 스님에게 각각 국민훈장 동백장과 목련장을 서훈했다. 이 밖에도 의궤 반환에 일조한 권철현 세종재단 이사장(모란장),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동백장), 이상찬 서울대 교수(근정포장) 등이 훈장을 받았다. 이날 오후 훈·포장 수여식이 끝난 뒤 정념 스님과 혜문 스님을 만났다.

"혜문 스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 시작 단계에서는 '의궤가 반환된다 또는 안 된다'는 전제를 두지 않고 불확실함 속에서 도전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큰 관심을 가졌고 일본에서도 우리의 뜻을 높게 평가해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다. 민간에서 출발한 운동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미력이나마 보탠 저 또한 감회가 남다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해외에서도 이를 선례로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념 스님)

월정사 앞장서 소유권 주장 설득력 높여

월정사는 조선왕조실록 및 왕실의궤 반환의 중심에 있는 사찰이다. 2006년 반환된 조선왕조실록과 지난해 돌아온 왕실의궤 중 상당수는 월정사 관할의 오대산 사고에 보관돼 있던 문화재다. 1922년 조선총독부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자료를 기증이란 형식으로 일본 왕실로 반출했다.

일본 현지에서 우리 기록 문화재의 실물을 확인한 혜문 스님은 2005년부터 본격적인 환수 운동을 시작했고 2006년 도쿄대에 보관 중이던 실록을 먼저 반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선왕실의궤 오대산본은 일본 왕실을 관장하는 궁내청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반환까지 쉽지 않은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다. 일본 정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자,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사무총장 혜문)는 우선 월정사의 소유권을 내세워 지난 2007년 5월 일본 측에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왕실을 상대로 조선왕실의궤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일본은 이 사안을 간과할 수 없었다. 어찌 보면 한국 시민단체의 엉뚱한 발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왕실과 소유권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었던 것.

환수위의 '무모한 도전'은 실제 반환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됐다. 일본 정부는 월정사가 궁내청과 소송이 성립되는 것 자체를 꺼려했기 때문에 한·일강제병합 1백년이 되는 지난 2011년 광복절을 명분삼아 돌려주게 된 것이다.

당시 월정사가 원고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1965년 체결한 한·일협정으로 인해 우리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 때문이었다.

정념 스님은 "월정사를 대신해 앞장선 분들이 많다. 수상을 하며 그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더불어 다시 한 번 의궤 반환에 힘쓴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혜문 스님도 처음 훈장 서훈 소식을 접하고 "쑥스럽다"면서 겸연쩍어했다. 그는 "단체의 대표로서 훈장을 마다할 수야 없는 일이지만 나를 믿고 또 어떤 순간에는 솔선수범하며 함께 활동해준 정치인, 시민위원들에게는 이 영광만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조선왕실의궤 환수 일지

2006년	9월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발족 11월 의궤 반환 협의 차 유네스코 방문
2007년	일본 국회의원 오대산 사고 방문
2008년	8월 의궤 반환 촉구 남북공동성명서 채택 9월 환수위 대표단 일본 관방장관에게 성명서 전달 12월 서울시의회 의궤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2010년	2월 18대 국회 의궤반환 촉구 결의안 채택 4월 일본 민주당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8월 간나오토 총리 강제병합 1백년 담화서 의궤 반환 약속 11월 한·일 정상, 도서반환 서명(APEC 정상회의)
2011년	4월 일본 중의원 의궤 반환 등 비준 5월 일본 참의원 결의와 조속한 반환을 촉구 11월 일본 노다 총리 대례의궤 등 일부 반환 12월 의궤 1천2백책 반환

"함께 활동한 정치인·시민위원께 감사"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반환운동을 시작할 당시 불쑥 월정사를 찾아가 정념 스님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3천만원의 경비를 요청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정념 스님은 흔쾌히 경비를 지원하셨다. 명분도 있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판단하고 선뜻 큰 돈을 내주셨다.

의궤 반환을 계기로 우리 시대 불교가 산중에만 있지 않고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큰 울림을 줬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앞으로도 미국, 중국 등지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힘쓸 계획이다."

혜문 스님이 대표로 있는 문화재제자리찾기(공동대표 이상근)는 그동안 우리 문화재 환수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문화재제자리찾기는 일본 도쿄대에 소장된 조선왕조실록을 서울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했고 2005년에는 일본에 있던 북관대첩비를 환수해 제자리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G

글·김대현 기자

미래 한국을 먹여살릴 젊은 인재들 '집합'

대한민국 인재상 1백명 선정… 발명·예체능·학업 등에서 두각 보여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젊은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2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1백명의 고교생과 대학생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젊은이들이다. 이들이 만들어갈 더 나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수상자들의 면면을 통해 미래 인재상을 살펴봤다.

경기도 안산 한국디지털미디어고에 다니는 전우성군은 음성인식과 인문학을 연계하는 수업을 듣고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스마트폰을 음성만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리할까?" 전군은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고 스마트폰 음성비서 서비스 '스피릿'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벤처기업을 설립한 전군은 고등학생 CEO로서 현재 학업과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군처럼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젊은 인재들을 한국의 미래 리더로 선정하고 대통령상과 장학증서(장학금 3백만원)를 수여하는 시상식을 지난 12월 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2012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수상자들은 발명·예체능·학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과 창의성, 봉사정신 등을 두루 갖춘 우수 인재들이다. 올해는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40명 등을 포함해 모두 1백여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2012 런던올림픽 체조 부문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학선(한체대) 선수와 인도네시아 현지 학생들과 공동으로 사회적 기업 '마하멘토'를 설립, 공부한류 전파에 힘쓰고 있는 강성영(서울대)씨 등을 비롯해 총 2백70여명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학부모와 은사들도 참석해 축하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기도 했다.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 양학선도 수상

상장 수여식에 이어 수상자들의 공연도 있었다.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다니는 문지영양은 피아노 연주를, 양산대 박인수씨를 포함한 비보이(B-boy)팀은 축하공연을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발명, 예체능, 학업 등의 분야에서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1백인의 인재'들이 선정됐다. 지난 12월 3일 인재상 수상자들이 시상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지영양은 2012 독일 에틀링겐 국제청소년피아노콩쿠르 1위, 2009년 폴란드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국제콩쿠르 등에서 수상한 바 있다. 박인수씨도 2012 프랑스 칸 브레이크 더 플로워 파워무브 배틀에서 우승하는 등 세계 비보이 대회에서 잇따라 우승해 주목을 받았다.

장애를 극복한 나눔 봉사자 등 고교 부문 수상자들의 훈훈한 사례도 이어졌다. 고등학교 부문에서 시각장애 1급임에도 우수한 학업 성적을 유지하며 친구들에게 보충교재를 제작·배부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노용후(마산고)군이 대표적이다.

장학퀴즈 7연승·디자인 국내외 수상자 등 포함

식품조리 분야에서 여러 수상실적을 거두며 한식이 가진 푸근한 정을 세계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힌 예비 요리사 이서율(신정여자상업고)양, 제6회 국제지구과학올림피아드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이찬영(전남과학고)군 등이 포함됐다.

대학 부문에서는 학부생으로 세계적인 과학저널에 표지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제 간 융합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조상연(KAIST)씨와 국내외 디자인 공모전에서 여러 번 수상 실적을 거둔 장순규(단국대)씨 등이 눈길을 끌었다. 조상연씨는 2012년 2월 말리리아 관련 연구를 위한 광학영상기술 활용을 주제로 한 논문이 셀(CELL)의 자매지인 'Trends in Biotechnology'의 표지에 실린 바 있다.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강다혜씨는 탈북자 출신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식음료경연대회에서 수상하는 등 바리스타의 꿈을 키워나가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했다.

일부 수상자들은 소감 발표를 통해 수상의 기쁨과 함께 장래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봉사와 나눔활동에 앞장서온 백아름(대전지족고)양은 "가족봉사 동아리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어린이재단의 학생홍보개발위원으로 활동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의 중요성을, 사랑의 열매 후원을 하며 나눔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면서 "봉사활동은 생활의 에너지이며, 후원 및 기부활동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준 소중한 친구와 같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는 재능기부 강연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경희대 이동진씨는 활발한 활동을 약속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젊은이의 열정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주는 상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

대한민국 인재상은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발굴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재상을 제시할 목적으로 매년 수상자를 선정해왔다.

수상자 선정은 교사(교수),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은 전국의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별 심사를 거쳐 중앙심사위원회 심의로 최종 선정된다. 올해 수상자까지 합치면 총 1천2백96명이 이 상을 받았다. 역대 수상자로는 2009년 프로골퍼 신지애, 2010년 축구선수 여민지, 2011년 체조선수 손연재 등이 있다. 글·김대현 기자

대한민국 인재상 받은 비보이 박인수씨

"초등학교 때 '비보이'를 처음 보고 인생 결정"

세계적인 비보이를 꿈꾸는 박인수씨는 지난 10월 22일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다.

부모님이 호떡집을 운영하신다고 들었다.

제 입으로 '철이 들었다'고 말하기에는 부끄럽지만, 춤을 추면서 부모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저를 '호떡집 아들'로 부르면 자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어려운 형편에서 자식을 키우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키워주셨어요.

춤은 언제 시작했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제시카 알바가 주연한 영화 <허니>를 봤어요. 프로 안무가가 된 주인공이 불우 청소년들에게 춤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였어요. 거기에 '비보이'가 나와요. 그 순간에 제 인생이 결정된 거죠. 저도 춤추는 사람이 돼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 멋진 공연을 해보고 싶었어요.

비슷한 나이에 춤을 추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비보이가 길거리 문화에서 나와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춤을 추면서 만난 형이나 친구 중에서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기술을 연마하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려요. 인내심이 필요하죠. 그런 참을성이 제 성격 형성에도 도움이 됐어요.

세계 무대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09년 고2 때 프랑스 툴루즈에서 열린 비보이 대회에서 '갬블러 크루'가 출전했어요. 5명의 '팀 배틀'이 잡혔는데 그때 저를 끼워줬어요. 동영상을 통해서만 봐왔던 세계적인 비보이들과 처음 맞붙은 거죠. 그 대회에서 형들 덕분에 우승했어요. 당시 저는 의자 모양의 '프리즈' 동작에 '파워무브'를 섞은 기술을 선보였어요. 그 동영상이 유튜브로 전해지면서 제가 알려졌어요.

또래에게 한마디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난 9월 21일 일본 도쿄에서 스티브 잡스 가면을 쓴 사람이 신형 스마트폰 아이폰5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애플은 스티브 잡스 사후에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를 잇따라 출시했다.

잡스 없는 애플… 더 이상 혁신은 없었다

일본 IT업계의 몰락… "디지털 시대엔 혁신만이 살길" 교훈

IT 분야가 또다시 요동친 한 해였다. 잡스 없는 애플은 특허를 통해 경쟁업체를 견제했고 모바일 분야에서 뒤처진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8에 모든 것을 통합한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페이스북은 또 다른 인터넷 벤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5가지 주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한 해를 되돌아본다.

애플의 홀로서기
"혁신 없이 특허로 시장 방어" 비관의 목소리

PC 시장을 창조한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을 통해 스스로 이 시장을 허물고 모바일 시대를 열었지만 아쉽게도 요절하고 말았다. 애플은 독재에 가까운 천재 잡스의 지휘력으로 성장한 기업이라, 그의 사후에도 애플이 혁신을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많았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 등 신제품들은 여전히 뛰어난 혁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성적 이면에 불안한 부분도 존재한다. 잡스의 조율 아래 서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성과를 내왔던 최고 간부들이 불화에 휩싸였고 이 때문에 퇴사자들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애플이 끝없는 특허 소송을 일으키는 것은 기술을 주도하기보다는 경쟁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 때문에 애플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목소리가 높다. 지금 발표하고 있는 기기들은 생전에 잡스가 관여했던 제품이라는 소문도 있다. 비록 잡스가 말년에 지속 가능한 회사를 구축하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실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 IT의 몰락
한국에 "도전하고 혁신하라" 강력한 경고장

아날로그 강국이었던 일본이 휘청거리고 있다. 휴대용 오디오 기기를 주도하던 소니가 침몰한 지는 이미 오래다. MP3에 밀리고 LCD 텔레비전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한 소니는 매분기 수십억 달러의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조만간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뛰어난 LCD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샤프는 대만 기업에 지분을 팔아 적자를 메워왔으나 이마저도 역부족이라 인텔 등 미국 기업에 긴급 자금 수혈을 요청하고 있다. 샤프의 LCD 기술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으며 가격이 싸면서도 배터리 시간이 늘어난 최첨단 LCD까지 개발한 상태다. 하지만 제품을 공급받을 애플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미리 지원받았음에도 전혀 경영난이 타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은 대기업 위주의 대량 생산 체제가 고착화되어 혁신이 필요한 신기술 개발에 뒤처질 위험이 크다. 10년 후를 주도할 기술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화려한 실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혁신은 도전 정신을 가진 벤처와 중소 기업들에서 나오지만 이들이 대기업의 하청 기업에 불과한 상태라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

IT가 주도한 미국 대선
유권자 맞춤형 선거운동… 정치·IT 동거 시작

정치와 IT는 이제 분리할 수 없다. 오바마 캠프는 2008년 대선이 끝나자마자 재선을 준비했다. 이들이 한 일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권자 개개인의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각 유권자 맞춤형 선거 운동을 진행한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유행하면서 미국 인터넷은 자발적 실명제로 바뀌었다. 페이스북을 통하면 유권자의 나이, 성별, 인종,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와 정치적 성향까지 파악할 수 있다. 오바마 캠프는 이런 정보에 기반하여 각 유권자 별로 각기 다른 선거 전략을 구사하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지지 호소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받은 사람들의 제보를 통해 확인한 결과 그 종류가 수천 가지에 이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온라인 강국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많다. 만약 신뢰성 있는 온라인 선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면으로 사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직접민주주의의 종주국이 될 수도 있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IT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 유권자 맞춤형 선거운동을 펼쳤다.

필터 버블 현상의 심화
정보편향·정보소외 균형 잡을 편집자 필요

IT를 대선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에 개인 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별생각 없이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에 흘리고 다닌다. SNS는 개인 정보의 천국이다.

인터넷 업체들이 개인 정보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 습관, 기호까지 파악하여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도한 정보 검열로 인한 정보 편향 즉 '필터 버블' 현상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는 검색과 SNS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필터 버블을 해소하려면 중간 편집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신의 이름을 건 편집자가 사회 구성원이라면 꼭 읽어야만 하는 글을 중요하게 배치함으로써 필터 버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SNS시대에 편집자의 역할이 다시 중요하게 되는 이유이다.

윈도우8과 MS의 위기
PC시대 세계 지배자, 생사 갈림길서 허덕

PC를 지배해온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바일 시대에 흔들리고 있다. 아이폰이 나온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에 맞설 만한 윈도우폰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윈도우8에 모바일 지원 기능까지 넣은 것은 PC용 윈도우를 무기 삼아 모바일도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지만 시장의 반응을 살펴볼 때 이것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동안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쳐온 MS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자. G

글 · 김인성 (IT칼럼니스트)

선자령 눈꽃은
산호초 숲을 걷는 이색적인
감흥을 느끼게 한다.
숲길을 넘으면 사방팔방
눈꽃 세상이 펼쳐진다.

동네 뒷산 걷듯… 눈 아래 순백의 눈꽃세상

어김없이 이번 겨울에도 꽃이 피었다. 눈꽃이 피었다. 투명하고 깨끗한 눈꽃은 봄꽃 못지않게 장관을 연출하곤 한다. 12월 말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지면 겨울의 호된 추위에 몸이 움츠러들기 마련이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지 않던가. 온통 눈꽃 세상으로 변한 강원도 평창의 선자령으로, 구름 위의 산책을 떠나볼까 한다.

평창 선자령 눈꽃 트레킹

평창의 겨울은 설국을 연상케 한다. 2018 동계올림픽 유치 도시인 평창의 눈꽃 축제는 아름답기 그지없다. 폭설이 내리면 가장 먼저 매스컴에 등장하는 곳이 대관령 일대인데, 그중 가장 황홀한 눈꽃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선자령이다.

강릉시와 평창군의 경계를 이루는 선자령(해발 1천1백57미터)은 백두대간의 주능선에 야트막이 솟은 봉우리로 남쪽으로 발왕산, 서쪽으로 계방산, 서북쪽으로 오대산, 북쪽으로 황병산이 장쾌하게 이어진다. 날씨만 좋다면 아늑한 강릉시내와 검푸른 동해바다를 볼 수 있으며 병풍 같은 산줄기를 품에 안을 수 있다.

또한 눈 많기로 소문난 대관령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겨울철 화려한 눈꽃터널을 감상할 수 있으며, 경사가 완만해 겨울 트레킹 코스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등산로가 미끄럽고 양쪽으로 칼바람이 몰아치기 때문에 아이젠과 겨울철 트레킹 장비는 필수다. 대개 산행은 옛 대관령휴게소부터 시작하는데, 해발고도가 8백32미터여서 정상까지 3백미터밖에 표고 차가 나지 않아 손쉽게 산행을 즐길 수 있다.

강원도를 영동과 영서로 가로지르는 이곳, 시쳇말로 구름도 쉬어 간다는 곳이 대관령이다. 고개 너머 동쪽이 강릉, 서쪽이 평창이다. 대관령은 겨울철에 영서지방의 대륙 편서풍과 영동지방의 습기 많은 바닷바람이 부딪쳐서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 매년 1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적설량이 1미터가 넘는다. 대관령의 강릉과 평창의 경계에 있는 선자령은 눈과 바람, 그리고 탁 트인 조망이라는 겨울 산행 요소를 고루 갖추고 있다.

옛 대관령휴게소에서 오르면 환상적 설경

겨울마다 하얀 설경이 눈부시게 빛나는 곳. 옛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대관령에 도착, 선자령 눈꽃 세상으로 떠나보자. 대관령과 선자령 일원은 워낙 높은 고지대여서 겨우내 내린 눈이 3월이 되도록 녹지 않고 줄곧 쌓이기만 한다. 그런 까닭에 한겨울에 가면 설국(雪國)에 빠질 수 있다. 옛 대관령휴게소에서 선자령으로 오르면 더욱 환상적인 설경이 트레킹족을 반긴다.

옛 영동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대관령 기상대 방면 시멘트 길로 1.5킬로미터쯤 오르면 대관령 산신을 모신 국사성황당이 나온다. 이곳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가파른 비탈을 조금만 오르면 시멘트 길과 만나고, 왼쪽 길로 6분 남짓 더 가면 선자령 안내판이 보인다. 여기서 시멘트 길과 헤어져 왼쪽 오솔길로 접어들면 본격적으로 선자령 산행이 시작된다.

눈꽃을 입은 전나무 숲길을 지나면 제법 높은 계단길이 시작된다. 그 너머로 양떼목장이 있다. 굳이 입장료를 내고 목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먼발치서 목가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목장의 철책선을 따라가면 선자령 등산로를 만난다. 오른쪽 샛길로 빠지면 국사성황당이 나온다. 성황당은 범일국사를, 산신각은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있다.

눈밭을 헤칠 자신이 없다면 이쯤에서 눈앞에 펼쳐진 눈부신 설원을 바라다보기만 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1시간 30분 남짓 눈길을 더듬고 오르면 선자령이 나온다. 매년 이맘때면 이곳

대관령 가는 길은 언제나 눈이 쌓여 있고,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설경을 만날 수 있다.

을 찾는 산악인과 트레킹족에 의해 눈길이 다져져 발이 푹푹 빠지는 일 없이 오를 수 있다.

선자령은 능선이 많지 않아 비교적 쉽게 오를 수 있다. 등산로는 동네 뒷산 가는 길만큼이나 평탄하고 밋밋하다고 보면 된다. 능선을 따라 이어진 설원에서 눈꽃을 감상하고 하산길에는 엉덩이썰매를 즐기며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인지 산행코스에는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가족단위 등산객을 자주 만날 수 있다.

구름 위에서 은빛 산들의 파노라마

선자령 산행의 백미는 정상에 서서 바라보는 산들의 파노라마. 정상에 올라서면 남쪽으로는 발왕산, 서쪽으로 계방산, 서북쪽으로 오대산, 북쪽으로 황병산이 내려다보이고, 맑은 날에는 강릉 시내와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일품이다.

주능선 서편 일대는 짧게 자란 억새풀이 초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반면 동쪽 지능선 주변은 수목이 울창하다. 등산로를 벗어나 돌길이나 진달래 숲, 조릿대 군락으로 잘못 들어서면 무릎까지 눈에 빠져 옷을 버리는 것은 물론 빠져나오느라 애를 먹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자령의 재미를 한껏 맛볼 수 있는 것은 하산길. 정상에서 초막골로 가는 동쪽으로 나 있는 하산길은 동해에서 불어온 바람에 몰린 눈이 많이 쌓여 있는 데다 적당한 경사를 이뤄 엉덩이썰매 타기에 적합한 코스가 곳곳에 마련돼 있다. 능선을 따라 내려가면 산을 타는 맛이 난다.

우거진 수목, 진달래나무가 가득하기도 하고 호젓한 산책로, 송림숲이 이어진다. 산등성이인 이 길은 앞질러 갈래야 앞질러 갈 수도 없다. 그저 앞 사람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능선 아래에서 계곡 쪽 방향으로 1시간 정도 내려가는 길목에는 돌과 바위가 많고 급경사라 위험할 수도 있다. 특히 아이젠을 착용하지 않았다면 이 길은 피하는 게 좋다.

내려오는 길에 양떼 목장에 들러도 좋다. 특히 연인과 데이트를 하겠다면 순백으로 물든 양떼 목장을 산책하는 게 좋다. 부채꼴로 이어진 1.2킬로미터의 산책로는 40분 정도면 횡단이 가능하다. 목장 내 설원 한가운데 있는 오두막은 영화 〈화성으로 간 사나이〉의 세트장으로, 사진 촬영 포인트이기도 하다. 예쁜 피아노까지 갖다 놓아 색다른 분위기가 전해진다.

풍력발전의 역사와 원리, 우리나라 에너지 현황과 재생에너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전시관에 들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돼 있다. 자전거 페달을 이용한 전기 만들기, 태양전지 벌레, 물자동차, 바람악기, 바람농구 등 미래 에너지를 활용한 체험공간이 조성돼 있어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이 전시관은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대관령 휴게소에 있다.

옛 상행선 대관령 휴게소에서 5백미터 거리에 있는 양떼 목장은 양 2백여 마리가 오순도순 모여 산다. 야트막한 구릉지대에 펼쳐진 '목장 길 따라' 쉬엄쉬엄 40분이면 색다른 운치에 젖어든다. 순백의 눈벌판과 나무마다 곱게 핀 눈꽃, 축사 주변 눈밭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양떼들이 한 폭의 동양화를 그린다. 한겨울에는 양을 방목하지 않아 양에게 건초를 주는 체험은 축사에서만 가능하다. 양들을 쓰다듬으면 손끝으로 부드러운 솜이불을 만지는 느낌이 전해온다.

황태해장국 먹고 신나는 눈썰매

횡계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내려오는 게 주코스다. 이곳에서 따끈하고 고소한 황태해장국에 몸을 녹인 후 대관령 스노파크도 한번 들러보자. 횡계읍 내 송천교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대관령 스노파크는 눈과 얼음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원이다. 플라스틱 눈썰매, 비료포대 눈썰매, 튜브 눈썰매 등 다양한 썰매를 체험할 수 있으며 얼음놀이장에서는 앉은뱅이 썰매, 팽이치기, 빙구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아이들은 손발이 꽁꽁 어는 것도 잊은 채 얼음놀이에 빠져들기 일쑤다. 놀이장 곳곳에 다양한 눈과 얼음조각이 조성돼 있다. 스노

1 대관령이 품은 횡계 황태덕장도 이색적인 겨울 풍경 중 하나다. 2 평창에서는 매년 눈축제가 열린다. 3 고산지대에서 자란 대관령 소고기는 육질이 좋다.

모빌을 이용한 스노래프팅은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한(大寒)을 넘기면서 혹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웅크리고 겨울을 피하기보다는 눈꽃 세상의 매력에 빠져 보고 썰매를 타며 겨울의 스릴을 맘껏 즐겨보자. 그게 겨울철 선자령과 대관령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G 글과 사진·유철상 (여행작가)

여행수첩

찾아가는 길 영동고속도로 횡계IC로 빠져나와 삼거리에서 우회전해 횡계 방면으로 1킬로미터 남짓 달리면 왼쪽으로 대관령 옛길 이정표가 보인다. 여기서 좌회전해 옛 영동고속도로를 5킬로미터 남짓 달리면 오른쪽에 옛 대관령 하행선 휴게소 건물이 있다. 이곳에서 옛 영동고속도로 위에 걸린 고가도로를 넘으면 상행선 휴게소와 국사성황당이 나온다. 국사성황당 옆 등산로로 올라가면 선자령이다.

먹을 곳 횡계 별미인 오징어불고기는 납작식당(☎033-335-5477)과 동양식당(☎033-335-5439), 황태요리(찜·구이·해장국 등)는 황태회관(☎033-335-5795)이 유명하다. 대관령숯불회관(☎033-335-0020)은 한우 등심과 갈비가 일품이다.

잠잘 곳 단체일 경우 미리 예약하면 양떼 목장(☎033-335-1966)에서 묵을 수 있다. 용평 스키장과 횡계 일원에는 숙박업소가 많다. 횡계 남우장(☎033-335-5582), 은성여관(☎033-336-0002)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용평리조트에서 스키를 즐기고 콘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횡계 일원 숙박업소가 만원일 경우에는 진부로 나가는 것도 한 방법.

평창군 www.happy700.or.kr ☎033-330-2000

궁중요리의 상징, 신선로

신선로(神仙爐)는 조선조의 궁중연회에 빠지지 않던 음식이다. 그 이름도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이라는 의미의 열구자탕(悅口子湯)이라 했으니 최고의 성가를 누린 찬선이 아닐 수 없다.

〈진연의궤〉에 그 재료로 "소안심살, 곤자손, 등골, 양, 간, 천엽, 돼지고기, 저태(楮胎), 꿩, 진계(陳鷄), 전복, 해삼, 표고, 은행, 호두, 녹두 가루, 숭어, 달걀, 계알, 무, 미나리, 파, 참기름, 밀가루, 간장, 후춧가루, 잣" 등이 기록된 것을 보면 그런 이름이 붙은 연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호사스러운 재료들로 만든 음식을 먹고 어찌 입이 즐겁지 않겠는가 말이다. 18세기 중반에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조엄의 〈해사일기〉에는 대마도 도주로부터 스키야키를 대접받은 일화가 나오는데 "그들은 일미라 하여 승기악(勝妓樂)이라 불리는 것이 있으나, 그 맛이 어찌 감히 우리나라의 열구자탕을 당하겠는가?"라고 했다.

맛이 매우 뛰어나 기녀와 음악보다 더 낫다는 의미의 승기악보다 열구자탕을 한 수 위로 쳤을 정도니 그 맛에 대한 자부를 엿볼 수 있다. 열구자탕은 이름도 다양하게 변하고 그 재료와 도구도 끊임없이 진화했다.

최고의 재료를 써 입을 즐겁게 하는 '열구자탕'

1795년의 〈원행을묘정리의궤〉에 열구자탕(悅口子湯)이 처음 등장하는데, 1827년의 〈진작의궤〉에는 열구자탕(悅口資湯)이라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쓰다가 1892년의 〈진찬의궤〉부터 다시 열구자탕(悅口子湯)으로 바뀐다.

1868년의 〈진찬의궤〉에는 면신설로(麵新設爐)와 열구자탕이 같이 올라 있다. 1882년의 동궁가례를 기록한 어상기(御床記)에는 탕신설로와 잡탕신설로까지 나온다. 그 이전인 1740년경에 나온 〈소문사설〉에는 열구자탕(熱口子湯)으로 올라 있으며 〈송남잡식〉에는 열구지(悅口旨), 〈규곤요람〉에는 구자탕, 〈이씨음식법〉에는 열고자탕이라 하였다. 〈동국세시기〉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 오이, 훈채와 달걀을 섞어 넣고 장국을 끓인다. 이것을 열구자 신선로라 한다"라고 했다.

1809년의 〈규합총서〉와 그 이후의 〈시의전서〉 등에 오늘날의 이

정복남 기자

름인 신선로(神仙爐)가 등장한다. 최영년의 〈해동죽지〉와 홍선표의 〈조선요리학〉에는 훗날 신선이 되었다고 일컬어지는 연산군 때의 선비, 정희량이 만들어 먹은 것이라 신선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야담 같은 해설도 나온다.

신선로라는 명칭은 조리용구의 이름이 음식명이 된 전형적 사례이다. 신선로의 크기를 1800년대 초의 〈옹희잡지〉는 대야만 하다고 기술하고 있어 옛날의 신선로는 지금 것보다 훨씬 크고,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먹던 음식임을 짐작하게 한다.

신선로의 재료는 기록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를 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신선로의 내력에 대해 식품사학자 고 이성우 교수는 중국의 훠궈(火鍋)가 우리의 신선로와 흡사한 도구를 쓰고, 또 많은 재료를 써서 만든다는 유사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 기원은 중국에서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조선 후기의 중국기행문인 서유문의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이나 김경선의 〈연원직지(燕轅直指)〉에 그곳 사람들이 열구자탕과 탕구자(湯口子)를 흔히 먹는다는 기록이 있어 중국유래설에 무게를 실어준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일관에서 현대화된 신선로를 맛볼 수 있다. G

글 · 예종석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신하가 흥해야 왕이 흥한다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오성과 한음' 이야기로 유명한 한음(漢陰) 이덕형(李德馨·1561~1613)은 실제로도 탁월한 경세가였다.

그는 조선 초 최대 명문가였던 광주 이씨로 연산군 때 화를 당한 이극균의 후손이다. 스무 살이던 1580년 문과에 급제한 이덕형은 이이 등의 주목을 끌며 승승장구했고 동인의 수장이던 이산해의 딸과 혼인했다. 벼슬살이의 출발부터 서인과 동인의 지지 속에 성장한 것이다. 그 때문인지 이덕형은 대체적으로 동인, 그리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되었을 때는 양측 모두와 교류했고 심지어 서인의 이항복과도 긴밀한 우정을 유지했다. 아주 드물게 당파에 구속되지 않은 인물이었던 셈이다.

그는 이재(吏才)뿐만 아니라 문재(文才)도 뛰어나 서른한 살 때 예조참판을 거쳐 대제학에 이른다. 이는 그의 학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그리고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임진왜란은 그에게 시련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전쟁 초기 일본과의 협상에서 실패를 겪기도 했지만 이후 선조를 가까이에서 보필하며 한반도를 덮친 전화(戰禍)를 다스리는 데 큰 기여를 하면서 벼슬도 끝 모르게 오른다. 불과 서른세 살 때인 1593년에 병조판서에 오르고 이듬해에는 이조판서를 역임한다. 그의 이재가 맘껏 발휘되는 시절이었다. 1598년 서른여덟 살의 이덕형은 우의정에 올라 '30대 정승'이 된다.

전쟁이 끝났을 때 이런 말이 있었다. "이(李)씨 성을 가진 세 분의 정승이 임금을 좌우에서 돕고 인도하여 오늘이 있게 되었다." 오리 이원익, 오성 이항복, 그리고 한음 이덕형이 바로 그 세 정승이다.

전쟁이 끝나자 이덕형은 경상·전라·충청·강원도 4도 도체찰사가 되어 전후복구에 힘쓰고 1601년 영의정에 오른다. 선조는 이덕형을 알아주었고 이덕형은 헌신적으로 임금을 모셨다. 그 때문에 당쟁이 격화된 선조 시기를 지나면서 이덕형은 당쟁에 앞장서지 않고서도 최고위직인 영의정에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이덕형에게도 광해군의 집권과 더불어 시련이 찾아온다. 광해군은 북인 중에서도 이덕형의 장인 이산해가 이끌던 대북파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이덕형의 앞길도 탄탄한 듯이 보였다. 광해군 집권 초기 영의정에 재차 임명된 것을 보더라도 출발은 순조로운 듯했다.

일러스트 · 유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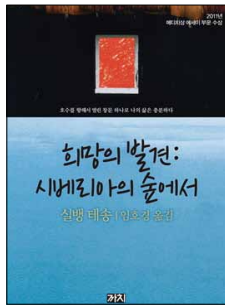
*뛰어난 학덕과 인덕으로 당쟁서 비껴서
왕의 신임 속에 임진왜란 힘든 시기 넘겨
영의정으로 새로운 왕을 잘 보필하려 했지만
갈등 끝에 삭탈관직당하자 결국 왕도 쫓겨나*

그러나 이덕형은 대북파의 실세인 정인홍이나 이이첨의 과도한 행동을 묵과하지 않았다. 특히 광해군 3년(1611) 정인홍이 이황을 공격하자 이덕형은 세 번이나 상소를 올려 정인홍의 그릇됨을 지적하였다. 또 광해군 정권의 안정을 위해 이이첨이 주도한 영창대군 배척과 인목대비 폐모론 등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1613년 이덕형은 모든 관직을 삭탈당했다. 이덕형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경기도 양근(지금의 양평)으로 낙향한다. 얼마 후 그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이때 나이가 쉰세 살이었다.

공교롭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후 임진왜란의 3대 수훈 정승이었던 오성 이항복은 북청으로, 오리 이원익은 홍천으로 유배를 떠난다. 다시 이런 말이 생겨났다. "이씨 성을 가진 세 분의 정승이 죽지 않으면 귀양을 갔으니, 이 나라가 병들고 시들어 끝내는 망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그들을 홀대했던 광해군은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G

글 · 이한우 (조선일보 기획취재부장)

〈희망의 발견 : 시베리아의 숲에서〉

자연과 하나 된 삶 6개월

실뱅 테송 지음 · 임호경 옮김
까치 · 1만3천5백원

"아, 아무도 모르는 데로 떠나 혼자서 한 달만 처박혀 있었으면 좋겠다."

이는 소시민의 바람일 것이다. 평소 '마흔 살 전에 숲 속 깊은 곳에서 살아보기'를 꿈꾸던 프랑스 여행작가 실뱅 테송은 서른일곱이 되던 해 2월에 시베리아로 떠난다. 바이칼호 주변의 숲 속에서 보낸 반년의 이야기를 쓴 책으로 작년 프랑스의 권위 있는 메디치상 에세이부문상을 받았다.

이 책은 '2월 9일'자로 시작하는데 여행 전 준비단계부터 보여준다. 시인은 도끼, 방수포, 스케이트, 숫돌 등 원시인처럼 혼자 살 때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먹물'답게 책 60여 권도 별도의 궤짝에 챙겼다. "나는 책과 시가와 보드카를 가져갔다. 나머지-공간과 침묵과 고독-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렇게 떠난 6개월은 '단순, 소박, 최소한의 삶'이었다. 오두막엔 창이 딱 두 개 있다. 하나는 남쪽, 하나는 동쪽. 동쪽 창으론 1백킬로미터쯤 떨어진 산봉우리들이 보인다. 화장실은 1백20걸음쯤 떨어진 곳에 팠다. "야생의 숲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도시 한복판에서 시들어 죽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게 처음 저자의 생각. 삭풍 속의 오두막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감사해하며, 잊었던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문득 떠오르는 어떤 순간의 기억 때문에 후회와 반성도 한다.

비록 아내의 이별 편지는 받았지만…

철저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생활. 명상에 잠기기에도 추운 영하 30도. 그 가운데 저자는 점점 자연과 하나가 되어간다. "소나무들은 무척 슬퍼 보인다." "창 유리로 들어오는 햇살의 애무는 사랑하는 사람의 그것만큼이나 감미롭다." 한껏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고, 성경 속 인물들을 하나하나 반추하기도 한다. "내가 누리는 사치? 그것은 매일, 내 욕망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펼쳐지는 24시간"이라고 말하는 순백처럼 단순한 삶 가운데 되짚어 읽는 니체, 콘래드, 미시마 유키오, 카뮈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슴속에 날아와 박힌다. 중간에 아내로부터 이별을 고하는 편지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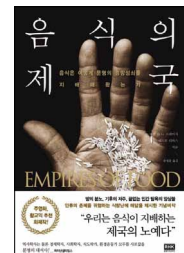
마침내 6개월이 지나고 오두막을 떠나야 할 날이다. "나는 삼나무들에게 말을 했고, (잡아먹은) 곤들매기들에게 용서를 구했으며, 가족들을 생각했다. 나는 산들의 시(詩)를 관조했고, 호수가 장밋빛으로 물들고 있을 때 차를 마셨다. 나는 미래의 욕망을 죽였다."

책장을 넘기는 눈앞에 시베리아 설원이 펼쳐지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바이칼호의 잔물결이 생생히 느껴지는 책이다. G

글 · 김한수 (조선일보 문화부 출판팀장)

새로 나온 책

음식의 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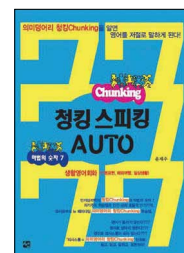
에번 프레이저 외 | RHK · 2만원

이 책은 16세기 피렌체의 상인 프란체스코 카를레티의 15년에 걸친 세계 일주를 따라간다. 인류가 땅에서 기르고 사냥하고 교역해온 '먹을 거리'에 대해 이야기하며, 지난 1만3천년간 음식이 인간의 운명을 지배해온 과정을 서술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부터 현대 미국과 중국의 몸살 앓는 곡창지대, 플렌테이션 농장까지 짚어보며, 음식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찾아본다.

서태후와 궁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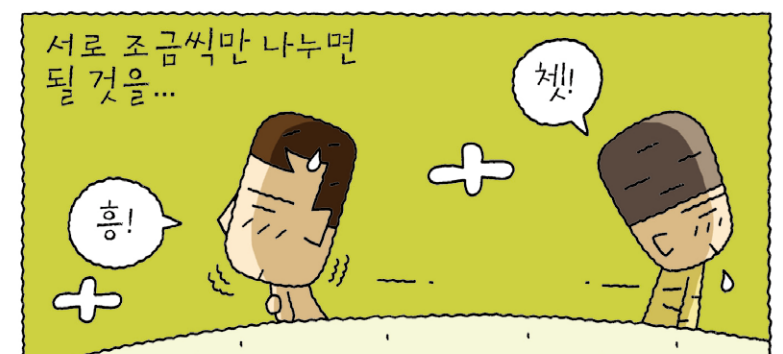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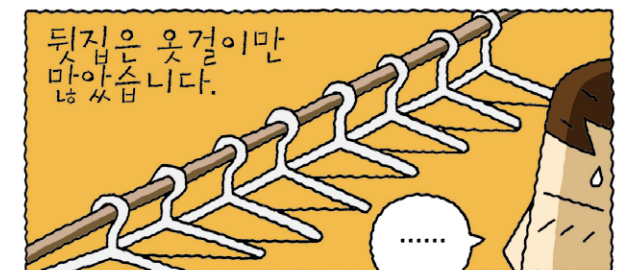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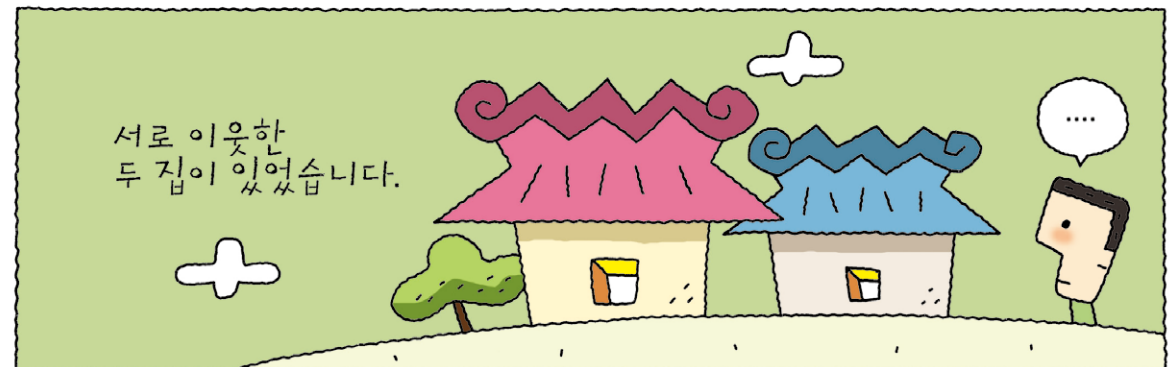
진이 외 | 글항아리 · 2만4천원

19세기 후반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의 권력자였던 서태후가 그 권력을 어떻게 누렸는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보고서다. 청 황실의 마지막 궁녀가 직접 들려주는 이 책은 자금성의 가장 깊숙한 곳의 은밀한 이야기와 왕실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서태후 만년의 생활을 중심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리던 궁중생활부터 서태후의 요강, 자금성 궁궐 바닥재, 담배 시중 등 소소한 일상까지 수록한 궁궐 뒷얘기를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청킹 스피킹 AUTO

윤재우 | 선 · 1만5천원

저자는 단어암기 위주의 학습이 아닌 동사구나 부사구, 형용사구 등의 의미 덩어리 청킹(chunking) 단위 위주로 영어를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기본적인 구(句)단위의 청킹 학습의 기본을 완성한 이후에 패턴영어나 문장따라하기를 활용할 것을 충고한다. 단계별 영어회화를 '자기주도학습'과 '전화영어' 두 가지 주제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옷과 옷걸이

글과 그림 · 최영순

일상의 풍요로움은 욕심 그릇을 비워서 채우고, 자신의 부족함은 차고 매운 가슴으로 다스리되 타인의 허물은 바람처럼 선들선들 흐르게 하라. - 헬렌 니어링 <소박한 밥상> 중에서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타령을 토대로 재창조한 창극 〈배비장전〉이 12월 16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무대에 오른다.

여심에 흔들린 꼬락서니 보자하니…

창극 〈배비장전〉

국립창극단이 창극 〈배비장전〉을 12월 8일부터 16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올린다. 이 작품은 창극의 콘텐츠를 다양화하기 위해 국립창극단이 추진 중인, 유실된 '판소리 일곱 바탕(변강쇠타령, 옹고집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장끼타령, 무숙이타령, 가신선타령) 창극화 시리즈'의 첫번째 무대다.

2008년에 연극 〈리어왕〉을 연출해 대한민국연극대상을 받은 이병훈이 이번 공연의 연출을 맡았고, 뮤지컬 〈대장금〉, 〈진짜 진짜 좋아해〉 등을 쓴 오은희 극작가가 창극본을 썼다.

이번 공연은 판소리계 소설인 배비장타령을 토대로 하고 있다. 원작은 배비장이 여인네들의 치마폭에 싸여 절절매는 다른 양반들을 비웃지만 자신도 기녀 애랑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빠지고 만다는 이야기다.

이병훈 연출가는 양반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꼬집은 원작의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창조했다. 주인공 배비장을 고지식한 공무원으로, 기녀 애랑을 당차고 현명한 현대여성으로 표현해 인간의 이중적인 속성을 풍자적으로 그릴 예정이다.

이밖에 공연시간과 무대형식이 특히 눈길을 끈다. 기존의 창극이 지루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극을 즐길 수 있도록 공연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 40분으로 압축해 극의 긴장감을 높였다. 무대 형식은 배우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연기하고 퇴장하는, 열린 형식의 마당극적 구조를 도입하여 신선미를 더했다. 또한 배우들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생생한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정리 · 정소안 인턴기자

기간 12월 16일까지 **장소**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문의** ☎02-2280-4115

전시 반고흐 in 파리

화가 반 고흐의 예술작품을 학술적, 교육적 방법으로 심도 있게 조명하고자 〈반고흐 in 파리〉 전시를 기획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화가로서 예술적 토대를 이룬 시기로 평가받는 파리 시기(Paris, 1886.3~1888.2)의 유화작품 6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 세계 반 고흐 개인전 가운데 가장 많은 자화상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는 파리 시기에 그려진 자화상 9점을 통해 비운의 화가 얼굴을 다각도로 조명해 눈길을 끈다.

기간 2013년 3월 24일까지 **장소** 예술의전당
문의 ☎1588-2618

공연 내 결혼식에 와줘

뮤지컬 〈내 결혼식에 와줘〉가 12월 16일까지 성수아트홀에서 관객들을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명동예술극장이 주관하는 '2012 창작 팩토리 뮤지컬 시범 공연지원공모 및 우수작품 제작지원'의 최종지원작으로 선정된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은 결혼을 앞두고 실직당한 남자가 그가 약속한 결혼식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고군분투기를 그리고 있다. 진정한 결혼식의 의미는 결혼식에서 보여지는 형식이 아닌 서로에 대한 진심과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줄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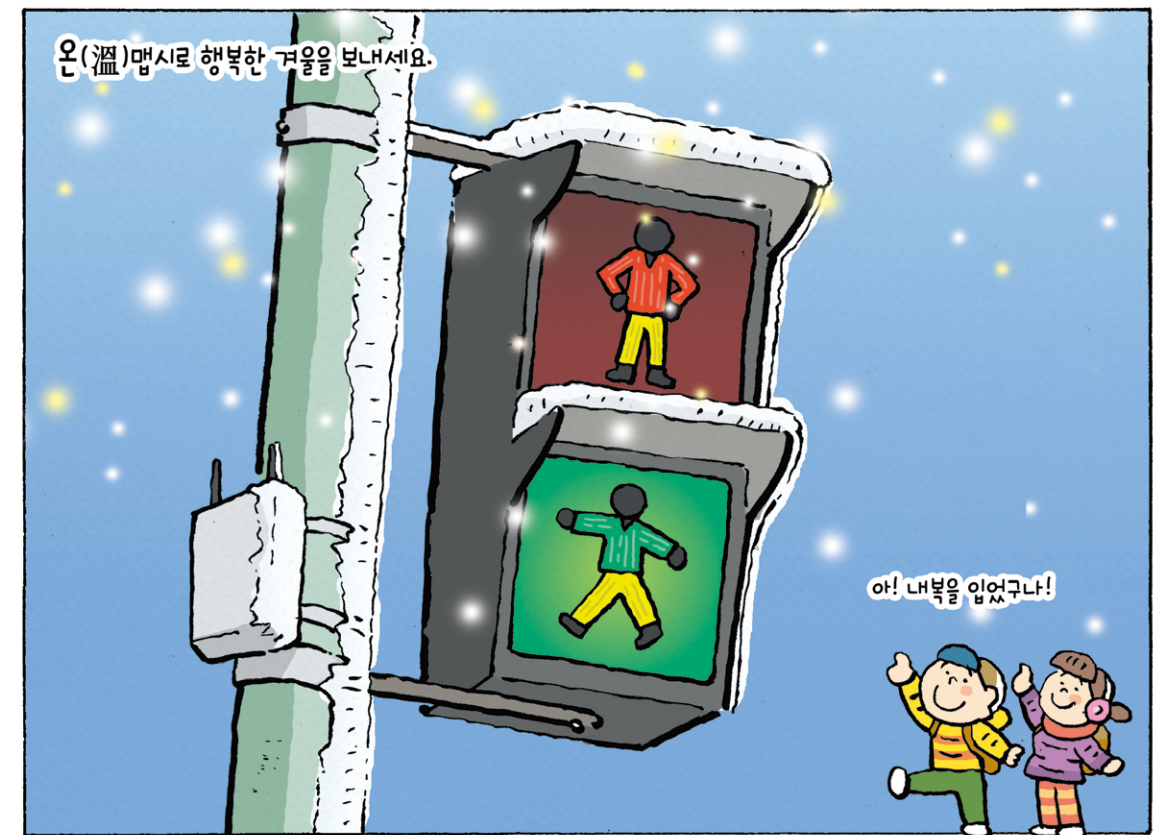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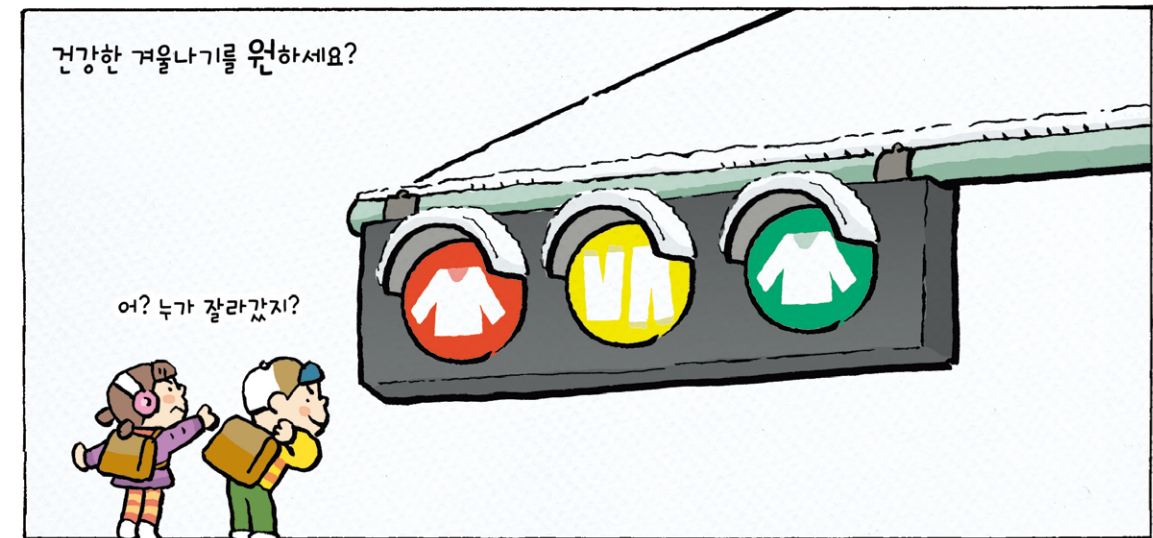
기간 12월 16일까지 **장소** 성수아트홀
문의 ☎02-765-8817

12월 둘째주 가온차트 가요 인기순위

11월 24일~11월 30일

곡명	가수
1 되돌리다	이승기
2 다리꼬지마	악동뮤지션
3 카페인	양요섭
4 허수아비	이하이
5 나쁜 사람	주니엘
6 스쳐간다	로이킴
7 힐링이 필요해	로이킴
8 1,2,3,4(원,투,쓰리,포)	이하이
9 하지 못한 말	노을
10 떨어	뚱스

행복한 겨울나기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에너지 절약! 내복입기로 시작하세요!

함박눈… 함박웃음

K씨는 지적장애 2급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조금 부정확한 발음으로 누구에게나 반말을 합니다. 그는 숙련된 자전거 수리공입니다. 그의 자전거 수리점은 허름하고 아주 조그맣지만, 아름드리 은행나무 가로수가 늘어선 한적한 도로변에 있어 낭만적으로 보입니다.

연둣빛 새싹이 움트는 봄이거나, 매미 울음소리 시원한 여름이거나, 거리가 온통 노란 은행잎으로 물드는 가을, 언제나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띠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버스를 타고 지나다니며 그런 그의 모습을 보노라면 세상이란 행복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풍경 속에 행여 그가 보이지 않을라치면 두리번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자전거 수리를 하러 들르게 될 때면, 괜히 친밀감이 느껴져서 인사도 건네고 이것저것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20년쯤 어려 보이지만 역시 나에게도 반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눌한 반말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도 적당히 반말로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이좋은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이 자전거 수리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주인이 되었고 수십 년 동안 단골인 고객들도 많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엇이든 살아있는 한 행복하길

요즘은 자전거 동호회들도 있어 고객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고객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박사도 있고, 각양 각계의 전문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에 관한 한 자신이 최고 전문가라며 씨익~ 웃습니다. 어떨 때 보면,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로 보이는 여러 사람 앞에서 특유의 함박웃음에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는 반말로 자전거학(?)을 열변하는 걸 보면, 정말 어느 전문가 못지않은 자신감과 당당함이 엿보입니다. 전문가 대 전문가로서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멋진 K씨! 선천적으로 장애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의 이변을 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자일수록 행복하지

일러스트 · 박영기

않은 표정으로 사는 것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추진동력같이 새로운 에너지가 휘몰아치는 수학능력시험의 계절, 대학원서 쓰기가 한창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LG전자 창사 54년 이래 처음으로 고졸출신 사장이 탄생했다고 대서특필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기사를 읽으며 훈훈하다기보다는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어떤 단체의 장이 되는 데 학력이 필요한가 봅니다. OECD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선진 경제국가로 불리고 있지만, 행복지수 순위는 34개국 중 26위로 거의 최하위라고 합니다. 어느덧 나는 환갑이 되었지만, 아직도 인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무엇이든 간에 살아 있다는 것은 행복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리 바빠도 인생에 대해 한번쯤은 고요히 생각해보아야 할 연말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각자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당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수리공 K씨의 환한 표정처럼 GDP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지는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글 · 유금옥 (시인)